

## 제2절 사천의 인문환경

### 1. 행정구역 및 변천

#### 가. 행정구역

사천시의 행정구역은 1읍 7면 6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천의 행정구역>



[출처: 국토정보 플랫폼]

## 나. 사천의 변천

### 1) 삼한에서 신라시대까지

시기		내용
삼한시대		변진 12국 중에 속함
가야 및 삼국시대		포상팔국중의 하나인 사물국에 속함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한때는 백제에 속함
통일 신라	법흥왕(6세기경)	신라에 정복되어 합쳐졌으나, 사물현, 곤명현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음
	법흥왕(532)	사물현으로 강등됨
	경덕왕 6년(757)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군현의 명칭을 한식화하면서 사수현이라고 고치고 고성군의 영현이 됨

### 2) 고려시대

시기	내용
태조 23년(940)	곤명현이라 개칭
성종 14년(995)	산남도(10도 중의 하나)의 진주목 예속
현종 6년(1015)	사주로 승격
현종 9년(1018)	서부(곤명현)는 하동군에서 진주목에 예속
명종 2년(1172)	감무(현감)를 설치

### 3) 조선시대

시기	내용
태종 13년(1413)	읍호를 다시 사천이라 고쳐 현감이 설치됨
태종 15년(1415)	사천진을 두어 병마사가 판현사를 겸함
세종 2년(1419)	남해현을 곤명현에 합쳐 곤남군으로 승격
세종 5년(1423)	병마절제사 임명
세종 12년(1430)	읍성을 축성하고 읍기를 지금의 곤양면 성내리에 둠
세종 19년(1437)	남해현을 다시 설치하고 진주목에 딸렸던 금양부곡(하동의 진교, 금남)을 예속시켜 곤양군이라 개칭
세종 27년(1445)	읍성을 축성, 현기를 지금의 사천읍 선인리에 둠
세조 14년(1468)	사천진이 혁파되고 현감으로 고치어 병마절제사가 현감을 겸함
고종 32년(1895)	팔도제 폐지, 전국을 23부제 실시로 곤양군과 합병되면서 사천군으로 되고 진주부에 속함

## 4) 근현대

시기	내용
1885.05.26.	칙령 제98호 공포로 진주부 사천군이 됨
1912.08.01.	부령 제129호에 의해 고성군 남양면, 진주군 문선면 편입
1914.03.01.	부령 제111호에 의거 진주군의 축동면, 부화곡면과 곤양군의 서면, 금양면을 제외한 일원이 사천군으로 편입
1918.05.10.	도령 제7호에 의거 수남면, 문선면을 합하여 삼천포면이 됨
1918.07.	수남면과 문선면이 합하여 삼천포면을 설치(10면)
1931.08.	읍동면을 정동면으로, 읍서면을 사남면으로, 읍남면을 용현면으로 각각 개칭
1931.11.01.	삼천포면이 읍으로 승격(1읍 9면)
1956.07.08.	법률 제390호로 삼천포읍과 남양면이 통합되어 삼천포시로 승격(8면)
1983.02.15.	대통령령 제11027호(1983.01.10. 공포)로 곤양면 가화리 1부를 진양군 내동면에 편입, 서포면 무고리, 맥사리를 곤양면에 편입
1988.05.28.	사천군 조례 제1034(1988.05.25. 공포)로 평화, 선인, 정의, 수석, 사주동을 리로 개칭
1995.05.01.	삼천포시 조례 제1448호에 의거 동서동, 봉이동, 향촌동, 대방동, 남양2동, 남양1동 등 6개동 통합함
1995.05.10.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48호에 의거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시군통합, 사천시로 개칭
1998.09.12.	사천시 조례 제274호에 의거 대방동을 동서동으로, 동좌동을 선구동으로, 봉이동을 향촌동으로 통합, 남양1,2동을 남양동으로 통합하여 1읍, 7면, 6동으로 개편

## 나. 각 마을 명칭의 유래

행정구역 내 다양한 마을 이름이 존재하고 그 유래도 재미있고 다양하다. 여기 수록된 내용들은 사천시청 누리집과 기타 자료들을 바탕으로 행정적인 내용보다는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유래를 중심으로 발췌, 가공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명을 담을 수는 없었고, 떠도는 말이 포함되어 그 유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해 둔다.

행정구역	유래
마을, 지명	
사천읍	사천읍지(1832)에 의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을 바탕으로 한 동이름이 원래 화신동(和信洞), 평례동(平禮洞), 상지동(尙智洞), 정의동(貞義洞), 선인동(宣仁洞) 등 5개 동이 있었는데 1907년 신지행정구역 정리에 따라 읍내를 군내면(郡內面)이라 개칭하고 위의 5개동을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자 부령 제111호(1914.03.01.)로 군면폐취분합에 따라 하서면(下西面)의 8개 동리, 상주내면(上州內面)의 3개 동리, 그리고 상서면(上西面)의 유천동 일부와 진주군 가차례면의 상동 일부를 병합하여 읍내면이라 개칭하였다. 1925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의하여 면명을 읍내면에서 사천면으로 개칭했다.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93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했다.
정동면	조선 초기까지 사천현의 읍기인 치소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상주내면과 동면을 사천읍의 동쪽에 위치한다하여 읍동면이라 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시 정동면이라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읍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읍기(관청이 있는 곳)가 있던 곳이었다가 세종 사천읍성을 쌓고 읍기를 천도해 감으로 구읍 또는 고읍촌으로 불렀다.
동계	600년 전 역이 들어서면서 신역이라 하였다가 얼마 후 동계역이라 고쳤다 한다.
예수	옛적부터 예를 숭상하는 마을이라하여 예촌, 예수정이라 한 것에서 유래한다.
반룡	풍수지리상 이 지세가 마치 소반위의 용이 사리고 있는 형상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암	부봉산 중턱에 덩바우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봄이 되면 바위틈으로 진달래가 만발하여 꽃바위 즉 화암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한다.
여옥	마을이 구슬처럼 오목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풍정	세종 때 사천읍으로 읍기를 옮기기 이전 향교가 지금의 풍정에 있을 때 향교의 많은 건물 중 풍화루의 風자를 따서 풍정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풍정(豐停)이라 쓴 후에 신평동으로 부르다가 1914년 신평동과 상정동(上井)의 글자를 따서 지금의 풍정(豐井)으로 되었다.

행정구역	유래	
	마을, 지명	
	수청	유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이름인데 맑은사수(사천강)가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한다.
	대곡 한실	산으로 싸여있는 분지인데 골안이 깊숙이 뻗어있어 큰골짜기라는 뜻으로 한실이라 부른다.
	노천 놀내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해서 노루내, 놀내라 부른다.
	대산	몽대(夢垓)라는 마을이름에서 대(垓)자를 따 대산이라 부르는데 몽대라는 지명은 임진란때 금산군수로 용맹을 떨친 영남3룡 주몽룡장군의 출생지로 그 부친이 꿈에 용을 보았다해서 용꿈을 꾸 집터란 뜻이라 한다.
	감곡	감(甘)자는 달다라는 뜻이 아니라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대곡처럼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복상	마을을 둘러싼 뒷산이 거대한 코끼리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만마	옛날 풍수사가 마을을 지나면서 만마부락을 둘러싼 능선과 5도랑 칠성바위는 천군만마와 같은 형상으로 보인다 했다 하여 만마로 불렀다 한다.
	학촌	원래 마을명은 고자실(顧子谷)이다. 고려 현종의 아버지 육이 능화에 유배되어 배방사(대산마을)에 있는 아들 현종을 보고 돌아올 적에 산꼭대기에서 아들이 있는 쪽으로 뒤돌아보았다 해서 고자실이라 부르다가 부락 앞의 학의 형국을 한 학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바뀌어 불렀다.
	소곡	조선 초기 쇠를 캐던 철장이 있었던 까닭에 쇠실(金谷)이라 부르다가 후에 사기그릇을 굽던 자기소가 설치되므로 소곡이라 불렀다.
	가곡	사천과 고성의 경계인 관계로 가장자리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객방	옛날에 철을 캐던 야철지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취락을 이루어 살았다하여 손님 객자를 넣어 객방이라 불렀다.
	사남면	
	초전리	강물이 자갈과 흙을 운반하여 큰 들을 만들어 마을을 형성하여 초전이라 한다.
	유천리	이 일대가 좁은 들이 뻗어 있음에 비취 받은 곳(廷坪)이었다가 버들 곳이 되면서 한자로 양화(揚花)되었다. 우리말에서는 ‘ㄴ’ 앞에서 ‘ㄹ’이 곧 잘 탈락하는 현상이 버들내에가 아닌 버드내가 된 것이다. 버드내는 한자로는 유천(柳川)으로 표기하는 땅이름이다.
	조동마을	동쪽에 갈마산이 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갈마산(渴馬山)이란 목마른 말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槽(구유 조)洞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곡성	지형이 성문을 밖으로 둘러 가려서 굽게 쌓은 성벽, 즉 웅성과 같이 지형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행정구역 마을, 지명	유래
	지내
우천리	새밭, 새골, 새내 등의 쇠밭, 쇠골, 소내 등으로 불리다가 금곡(金谷), 우천(牛川)등의 한자식 땅이름으로 옮겨갔다. 새는 ‘소’ 로도 음이 옮겨가 한자의 ‘牛’ 자 땅이름이 되었다.
능화마을	마을 뒷산에 고려 8대왕 현종의 아버지 옥(안종 추존)의 묘가 있었다고 능화(陵花)라고 한다.
사촌리	사촌이란 지명을 일설로 옛 사기점(도자기 판매점)이 있었다 하여 사월(沙月) 또는 사촌이라 하였다 한다. 즉, 뒷산은 무이산의 산맥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서쪽으로 갈마산이 길다랗게 내려와서 마을이 반달같이 아담하게 생겼다 하여 사월이라 하며 사촌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산과 산의 사이골이란 뜻이며 즉 ‘삿골’ 산줄기가 삼태기처럼 아늑히 둘러싼 골짜기 마을, 한자로 옮긴 것이 사월(沙月) 또는 사촌(沙村)이다.
진분계	진주, 고성, 사천의 경계로 진주의 경계란 뜻의 지명이다.
용현면	
선진	<선조실록>에 의하면 이순신장군의 사천해전 때에는 선창(船滄), 정유재란 때에는 범질도, 신채, 동양, 동양창 따위로 기록하고 있고 조선 후기에는 이 곳에 삼천진보가 설치되어 선진 또는 선소라 했으며, 구한말 때에는 화계라 고쳐 불렀는데 지금은 선진(船津)이라고 부르고 있다.
연호	1914년경의 기록에는 연포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고 흔히 연개라고 부른다. 일부 사람들에 의하면 굴강(구강)에 염전이 있어 염포(소금을 만들고 실어 나른 갯가)라고 하기도 하고 염전이 있던 곳이 연밭으로 변하여 오늘의 연호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석거리(신기)	덕석골에서 나는 곡식을 섬에 넣어 쌓아 두던 거리라 하여 섬거리란 이름이 생겼고, 이것이 변형되어 석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통양	바다로 통하는 마을이라고 하여 통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뺨득물(평기)	약 400여년전 임란 공신인 경주인 이잠 이후 후손들이 언덕을 개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여 뺨득물이라고 불리어 오다가 1907년 지방행정구역 정리시의 기록상에는 평기동으로 되어 있으나 간간히 ‘뺨득물’ 또는 ‘뺨득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온정	옛날에 어떤 술사가 된 먼당(세암 뒷편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지세를 살펴보니 봉대산에서 뺨어내린 산세가 예사롭게 생기지 않아 이 산세의 마지막 끝나는 지역에 온천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지형 설명이 있어 그 곳을 살펴보니 과연 그 곳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 있으므로 온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행정구역	유래	
	마을, 지명	
	용정	마을 뒷산 지형의 생김이 서쪽 강지바다를 보고 있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동네 이름이 '용머리' 또는 '용머리땀'이라 불리고 있으며 샘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용정이라는 설도 있다.
	석계	돌개(물이 돌아 흐르는 개울가의 마을)라는 지명의 음 훈차라고 본다. 돌개에서의 돌은 돌다의 뜻이고 계는 물가의 뜻으로 돌이 돌석자로 훈차(뜻을 빌림)되고 개는 계로 음차(음을 빌림)되었을 것으로 본다.
	금구	구정 냇고랑에 거북이가 많이 서식하였는데 거북이는 장수한다는 뜻에서 거북 '구'자를 합쳐 금구라고 명명하였다는 설과, 다른 한 설은 동쪽의 산줄기와 쇠금자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거북구자와 합하여 금구로 명명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용치	1914년 4월 1일 지방조직개편때 개치와 용유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용치라 명명되어 졌다.
	오동지(신송)	오동나무 숲이 있어 오동지라고 했다.
	덕곡	옛날에 이 지역이 물이 좋고 농토가 많아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신덕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신덕의 '덕'자와 백천골의 긴 계곡 아래에 있다하여 '곡'자를 합하여 붙여졌다.
	금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인근 동쪽에 하남장이 서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방으로 길이 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거문고 소리를 들을수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될 것이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금문이라고 지어진 설과 '검물'에서 유래된 설이 있다. 검물의 '검'은 크다, 많다는 뜻인 고어인데 물이 많은 동네라 하여 검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와룡산의 물이 백천골에서 합하여 배치와 신덕을 거쳐 내려오는 시내의 물이 많아서 검물이라고 부르다가 금문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축동면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하동의 축곡면과 가차례면, 사천군 북면의 토촌 등 일부와 진주군 부화곡면의 가산, 학수, 하구, 반룡, 구호, 성산, 탑동, 신촌, 관동의 9개 동리를 병합하여 다시 축동면이 되었다.
	구호	조선 때 해창이 있던 곳이어서 구해창 또는 구호라 불린다.
	길평	길호강가에 있는 마을이라 길평이라 불린다.
	반룡	용이 서리고 있는 지형이라 반룡이라 불린다.
	배춘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 하여 배춘이라 불린다.
	사다	선비(士)가 많이(多) 사는곳이라 하여 사다로 불린다.
	탑리	탑이 있어 탑골 또는 탑동으로 불린다.

행정구역	유래
마을, 지명	
곤양면	
성내리	조선 세종 12년(1430)에 평지식 곤양읍성이 축조되었는데, 성안에는 삼동(三洞), 수동(水洞) 2개 마을이 있어 성내리라 불렀다고 한다.
남문외리	읍성의 남문 밖이 되므로 남문외리(남문외촌)라 불렀다고 한다.
서정리	곤양군 때에는 동부면의 지역으로 솔골을 동서로 나누어서 동쪽을 동정, 서쪽을 서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정동, 서정동, 사동과 서부면의 방천동, 맥사동 일부를 합하여 서정리라 해서 곤양면에 편입되었다.
무고리	물고뱅이 또는 무고뱅이 및 무고(武庫)라고 부르다가 현재의 무고(舞鼓)로 개칭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맥사리	백두산의 정기가 지리산을 거쳐 지금의 맥사마을에 와서 맺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전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포곡동(浦谷洞)·가전동·송정동을 병합하여 송전으로 하여 곤양면으로 편입되었다.
동밖(송정)	곤양성 동문 밖이라 하여 동밖이라 불러 졌으며, 여기에 정자가 있어서 송정이라 했다고 한다.
대진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석문(石門)·제민(濟民)·한월(寒月)·어류(魚遊)를 병합하여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하여 대진리가 되었다.
묵곡리	조선조시대 먹을 만들었다고 하여 먹실 또는 묵실이라 하는데서 유래한다.
흥사리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곤명면	
용산리	둘러쌓인 능선이 구리(=뱀,蛇)나 용처럼 형국되어 있어 "구리실"이라 불리어 오다가 100년전 용(龍)의 산형이 옳다 하여 용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조장리	방앗간이 있어 새가 많이 모인다하여 조장(鳥場)으로 불리게 되었다.
연평리	'연'향동과 조'평'동을 병합하여, 연평리가 되었다.
봉계리	앞산의 봉알자리(飛鳳包卵)와 초량천(草梁川)의 내가 흐르고 있어 봉계리가 되었다.
손도(초량리)	용산리에서 상주(喪主)가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손자가 조석식반을 6년간 나르는 내왕 길이었다 하여 손도가 되었다고 한다.
은사리	난을 피해 선비들이 숨어 살던 곳이라 하여 은사리가 되었다.
작팔리	작문팔수(作文八首)의 문장으로 병풍형(屏風形)의 산으로 둘러쌓인 마을이라 작팔(作八)이라 한다.
신흥리	새로 이룩된 마을이란 뜻으로 진양호의 확장공사로 주민들이 이주하여 마을이 번성하게 되었다.
정곡리	그릇점이 있던 곳이라 점골이라 하던 것이 정곡이 되었다 한다.
본촌리	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라 근본이 되는 마을이라 하여 본촌리라 불렀다.



행정구역 마을, 지명	유래
서포면	
통정	통새미라 불리는 썸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가뭄이 들어 새미가 다말라도 통새미는 마르지 않아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어 통새미 마을, 한자로 통정이 되었다.
대포	웃골, 새미골 두땀이 두포(豆浦), 가운데굼덕, 아랫굼덕, 썸빛골(새미골), 뒤편골, 대동안의 다섯땀을 대평(大坪)이라 불렀고, 구역이 통합되면서 '대'평과 두'포'가 합쳐져 대포가 되었다.
구랑	거북이가 물을 먹으러 내려오듯 고개를 내미는 형용(形容)이라 하여 구랑(龜浪)이라 하였다.
잔드리(조교)	삼천포로 가기 위해 이곳에서 작은배들이 많이 닿았는데 배를 대놓고 다리를 연결하여 육지와 오갔다 하여 잔드리라 한다.
금진	쇠느리라 불렀으나 일제강점기때 쇠(牛)를 쇠(金)로 바뀌어졌고 전에 쇠느리도 바닷가이면서 나무가 있다하여 나무진(津)을 사용하여 현재의 금진이 되었다.
도토틀(신흥)	동네뒤의 산형상이 토끼가 다른 곳으로 뛰기 위해 준비하는 형상이라 하여 '도토틀'이라 하였다. 굴포마을과 분리하며 새롭게 일어선다는 뜻으로 신흥이 되었다.
선전리	선착장에 창고를 지어 농산물 운송을 해상 교통에 의존하였던 성창(城倉)마을이었으나 이후 선창(仙倉)으로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선창과 염전을 합하여 선전리가 되었다.
구포	원래 지명은 구우진(九牛振), 구신머리라고도 한다. 동네 산의 형태가 아홉 마리의 소가 누운 형상이라는 설과 소 아홉 마리가 들어와서 흩어져 동네가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자표기법에 따라 구포가 되었다.
비토	토끼가 비상하는 형상이라 하여 비토리라 불렀다.
동서동	1956년 삼천포시로 승격되면서 동동과 서동을 통합하여 동서동이 되었다.
해태거리	구한말 전씨 문중의 젊은 선비의 진사급제를 출하하기 위하여 화짓대를 세웠다고 하여 화짓대거리라고 하다가 현재의 해태거리로 불려지고 있다.
대방	약 400년전 '꽃다울'고을이라 하다가 '화방(花芳)'이라 바뀌고 임진왜란 때 진주목관에서 파견된 군마가 진을 치고 대방진이라 하여 동이름이 대방으로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 마을, 지명	유래
병거지섬	대방동 앞에 있는 섬으로 모양이 병거지처럼 생겼다고 한다.
울역도	대방동 남쪽에 있는 섬으로 썰물 때만 섬이 보이는데 물살이 세어서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늑도	말굴레처럼 생긴 지형이라 늑도라 불렀다.
학섬	학의 서식지로 학섬이라 불렀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으나 언제부터가 학이 날아들지 않아 지정 취소되었다고 한다. 부어도라고도 불린다.
마도	새섬이라 하다가 동남쪽에 늑도가 있고 그 옆에 초양도가 있어 굴레와 물이 있으니 옆에 말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마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신수도	주위의 섬과 봉우리의 수를 더하면 신두 개가 되어 신두섬이라 불렀다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신수도가 되었다고 한다.
선구동	
동림	마을의 위치가 해가 뜨는 정면 동쪽을 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산 중턱에 자리 잡아 숲이 많이 우거져 동림이라 불렀다.
좌룡동	소용두와 용호 마을 북쪽에 있는 작은마을 셋을 합하여 이루어진 좌삼마을과, 북쪽에 용이 사는 호수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용호마을이 행정 개편되며 통합되어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동서금동	
숲피	동금동 동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써 이 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쪽은 바깥숲피, 서남쪽은 안숲피라고 한다.
팔포	옛날에 한대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 여덟 팔자 같이 벌어져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팔장개, 팔양개, 팔양포, 팔장포로도 불렀다.
목섬	동서금동 일대의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어 이곳 주민들의 목숨과 같다하여 목섬이라 불리게 되었다.
노산	시의 중심부인 선구동과 동서금동의 경계에서 남쪽바다로 돌출한 갑(岬)의 독메로 해안일대를 매축하여 현 시가지가 되기 전의 노산은 물이 들 때에는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 무렵 노산에 서당인 호연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다니기 위하여 큰 돌로 징검다리를 놓았던 바, 당시 사람들이 이 징검다리를 '노다리'라 부르고, 다리 이름을 따서 '노다리산'이라 하다가 노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호연재의 팔문장중에 '노(魯)'라는 호가 있는 분이 있어 노산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행정구역 마을, 지명	유래
별용동	수남면 별리라 하였으나 1918년 수남면과 문선면이 통합되며 삼천포면 별리리가 되었고, 시로 승격되면서 별리동, 용강동, 와룡동 등으로 분리되었다가 1969년 별용동으로 통폐합되었다.
황새고랑	선짓개들에서 팔포에 이르는 들판으로 흐르던 도랑인데 황새가 많이 노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자바우	널떠밭등 상봉에 있는 바위인데 모양이 사자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와룡산	용이 누워 있는 산의 형상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801m이며, 새섬봉을 정상으로 하며, 주봉은 민재봉이다. 산 아래 마을이 형성되며 와룡마을이 되었다.
옥정수	와룡동 뒤쪽 들에 있던 샘으로 보통사람이 손대거나 마시면 죽거나 미치광이가 된다 하여 손을 못대고 있다가 근년에 이 샘을 메웠는데 메운 사람이 곧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티골	와룡골에서 스님들이 죽으면 화장하던 골짜기를 말한다. 와룡골에 사찰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마뚜등	절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대형 솔가마를 걸고 식사를 제공하여 이 터를 가마뚜등이라고 부른다. 이 또한 와룡산에 사찰이 많았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향촌동	
옹구점	옹기 굽는 시설이 있다 하여 옹구점이라 불렀다. 현재의 모례마을이다.
붓가	향촌 중앙으로 흐르는 내를 일컫는데 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시리바우	신향 남쪽에 있는 바위인데 끝에 우뚝 솟을 바위가 시루를 닮아 현지어인 시리바우의 이름이 붙었다.
진너리끝	현재의 진널 전망대 자리로 신향 남쪽에 있는 산 끝을 말한다.
코끼리바우	남일대 남동쪽 끝에 보이는 벼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마치 코끼리의 형상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엉새미	상향마을 위쪽에 있는 샘이다. 샘 주위에서 부엉이가 자주 울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처녀바우	현재의 매향암각. 바위가 보이면 망한다하여 주변에 많은 잡목을 심어 바위가 보이지 않게 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지금까지 암각이 보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궁짓들	향촌동과 고성군 하이면이 접하는 지역, 들판이 넓고 기름지며, 북쪽으로 와룡산이 뻗어 있어 궁궐로 들어가는 형국이라 궁지 또는 궁지 들판의 뜻인 궁짓들이라 불렀다.
비룡재	와룡산의 용이 이 재에서 승천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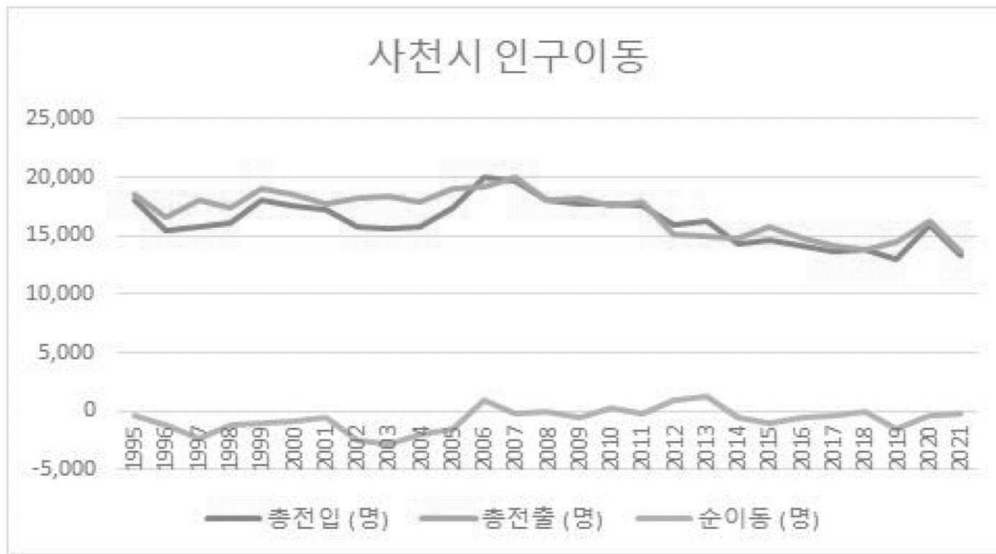
## 2. 인구

### 가. 사천의 인구수 변화

사천의 인구는 1960~1970년대 14만여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 시기 어획량과 수산물 가공 산업의 황금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수공업 형태의 산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종합 대학교가 없어 대학 진학을 할 경우 대부분 타 도시로 나가게 되어 젊은 세대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현재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항공 우주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 2000년대 이후 11만~12만 사이에서 인구가 유지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사천시의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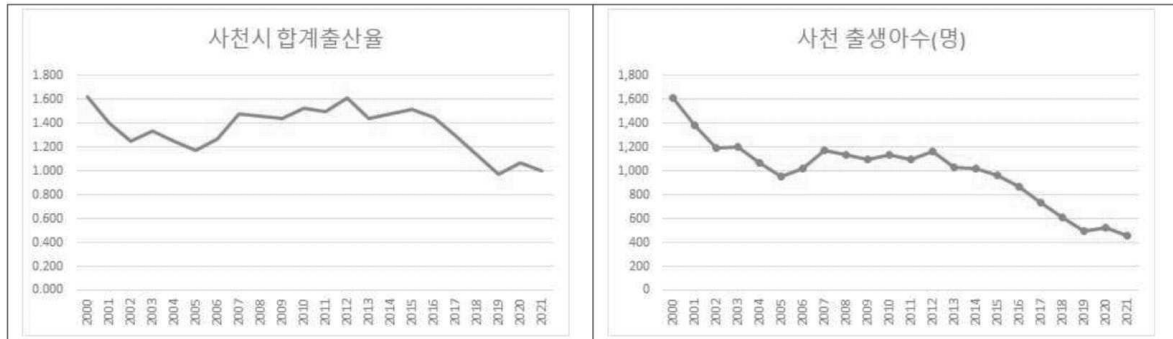
시점	총인구수(명)	남자인구수(명)	여자인구수(명)	비고
1425	6,448			경상도 지리지
1895	29,892			경상도읍지
1931	76,040			
1941	91,949			
1956	51,288	24,536	26,752	삼천포읍 시 승격 인구
1961	140,163 (89,227)	68,627 (43,660)	71,536 (45,567)	팔호 안은 사천군 수치
1971	143,447 (88,531)	71,411 (44,072)	72,036 (44,459)	
1981	137,175 (71,610)	68,331 (35,944)	68,844 (35,666)	
1991	124,088 (58,351)	61,231 (28,757)	62,857 (29,594)	
1995	122,830	60,945	61,885	시·군 통합수치
2000	119,326	59,710	59,616	
2005	111,293	55,687	55,606	
2010	114,148	57,365	56,783	
2015	115,452	57,932	57,520	
2016	114,912	57,698	57,214	
2017	114,252	57,476	56,776	
2018	113,888	57,394	56,494	
2019	111,925	56,451	55,474	
2020	111,105	56,010	55,095	
2021	109,953	55,433	54,520	



〈사천시의 2000년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시점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명)
2000	1,609	1.619
2001	1,386	1.407
2002	1,194	1.246
2003	1,205	1.335
2004	1,073	1.252
2005	958	1.176
2006	1,019	1.266
2007	1,177	1.483
2008	1,139	1.462
2009	1,102	1.438
2010	1,134	1.532
2011	1,098	1.495
2012	1,161	1.613
2013	1,031	1.446
2014	1,024	1.479
2015	968	1.518
2016	871	1.451
2017	738	1.298
2018	610	1.135
2019	497	0.974
2020	523	1.068
2021	462	1.002

[출처: 통계청]



2000년 이후 사천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619명을 정점으로 1.2~1.5명 사이의 출산율을 보여오다가 2018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전체 인구가 줄면서 출산 가능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고, 출산율까지 떨어지며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2021년 기준 출산율(1.00명)이 전국 평균(0.81명)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 3. 언어

사천의 언어는 진주, 남해, 하동, 고성, 통영과 함께 경남 서남부 방언권을 형성하고 있다. 옛날에는 진주라는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으며, 북쪽으로는 소백산맥이라는 험한 산악으로 가로막혀 있고, 서로는 물의 흐름이 평탄하지 않는 섬진강이 세로로 흐르고 있어서 서쪽의 전라남도 지역과도 왕래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사천은 다른 지역에 비할 때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남해, 하동과 함께 특유의 경남 서남부권 방언을 형성해왔고, 동시에 진주와 방언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지금은 표준어에서 사라진 성조가 많이 남아있으며, 해양문화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거센소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방언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어휘 자료를 정리하면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이 두음법칙으로 인해 ‘ㄱ’로 시작하는 발음 단어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있겠으나 사천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적인 방언의 색채는 많이 열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락 단위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사천 특유의 방언이 잘 살아 있다. 마을마다 약간의 어휘에 차이가 있지만 성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쓰이는 단어도 대동소이해 김세진(2006)의 논문에서 사용된 지역별 방언 비교

내용 중 사천 방언의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사천시 축동면 이현자 여사의 감수를 받아 사천 지역에서 사용하는 성조를 살린 방언을 소개하여 지역 언어의 색채를 보존하고자 한다.

### <사천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투>

· 성조(높게 읽기), : 길게 읽기, : 성조(낮게 읽기)

말투	뜻
간·물·에 조·옴 당·가 나·아·라.	소금물에 조금 담궈 놓아라.
·또(:)·옥 강새·이·결·네	마치 강아지 같다.
개·급·아·서(/혜·급·아·서)짚·단 드는·거·결·네.	가벼워서 짚단 드는 것 같네.
·개·덕·도 ·열·두·분·도 더·지·인·다.	변덕도 열 두 번도 더 부린다.
문·무·울·거·는 :말(:)·큰 개·리 내·애·라.	못 먹을 것은 전부다 가려 내어라.
저·녁·마 테·모 ·몸·이 ·개·럽·아 죽·졌·다	저녁만 되면 몸이 힘들어 죽겠다.
날·도 안·개·리·고(/안·개·리·고):아·무·한·테·나 :잘·간·다.	낮도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잘 간다.
얼·라·아 그·래 간·지·럼·태·우·지 마·라.	아이에게 그렇게 간지럼 태우지 마라.
개·얌·치(/갯·주·무·이)안·에 열·어·라 잇·아·뻘·다.	주머니 안에 넣어라. 잃어버릴라.
우·리·아·아 ·글·조·옴 개·차·아 :조·오·라.	우리 아이 글 좀 가르쳐 줘라.
·야·아·야 빌·리·준 이·장 조·옴 거·다·아 ·덜·이·라.	애야. 빌려준 연장 좀 찾아다 놔라.
역·마·살·이 찌·있·나.:와·아 :자·꾸 :나·갈·라·쿠·네	역마살이 찼나. 왜 자꾸 나가려고 하니?
아·직 거·무·는 보·모 재·수·가 있·는·데 저·녁 거·무·는 재·수 :없·다·고 잡·아·라·쿠·데.	아침 거미는 보면 재수가 있는데, 저녁 거미는 보면 재수 없다고 잡아라고 하더라.
돌·덩·이(/:도·올):중·기 나·아 나·왔·다.인·자·아 :건·디 :가·바·아·라.	돌덩이를 좋게 놓았다. 이제 건너 가봐라.
그·집·에 아·아 나·왔·나?:와·아 :경·구·로(/:경·구·지·로)쳐·나·왔·네.	그 집에 아이를 낳았니? 왜 금줄을 쳐놨니?
간·질·저(/간·질·지)마·라.간·지·라·바 죽·졌·다.	간지럽히지 마라. 간지러워 죽겠다.

말투	뜻
게이장·사 오·모(/오·몬)조·옴 알·리 :주·라.	생선 장사 오면 좀 알려줘.
푸·옥 매·애 고·아서 국·물·마 무·우·라.	폭 많이 고아서 국물만 먹어라.
이·전·에·는 고도·이 눈·에 :옴·매·나 :많·았·다·고.	이전에는 고등이 눈에 얼마나 많았다고.
고·오·매·쫄·구·리(/고오매쫄구리)·따·로 가·자.	고구마 줄기 따러 가자.
고치까리·가(/고치까·리):없·다.조·옴 뽀사·아·라.	고춧가루가 없다. 좀 뽀아라.
골·고·르(/고리고리)나나·아 ·조·오·라(/갈·라 :조·오·라).	골고루 나눠 주어라.
무시묻거·로 구덕(/무싯구덕)조·옴 ·파·라.	무 심게 구덩이 좀 파라.
아·들 노오·모 니야까타·고 ·딸·노·오·모 비앵기탄·다·쿠·데.	아들을 낳으면 리어카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 하더라.
나·는 ·저·거 ·씨·능·것·까 안씨능것·까?:와·아 ·멧(:)·날 매·칠·로 방꾸숙 ·에 구불·아 땡·기·거·로 나·아 ·두·네?	너는 저것이 쓰는 것이니? 안쓰는 것이니? 왜 몇날 며칠을 방구석에 돌아다니게 놔두니?
국건디·기·가 하나·또 :없·다.:또·옥 머·리·감·은 ·물·매·애·로 밀금하·네.	국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꼭 머리 감은 물처럼 멸경구나.
국끄리·로 ·갈·아서 국·에 조·옴 ·풀·어 여·어·라.	국거리로 갈아서 국에 좀 풀어 넣어라.
멧(:)·분·이·나 씨·이·도 ·군·소·리 하나 안하·고(/·군·담·없·이)·저·리 잘한·다.	몇 번이나 시켜도 군소리 하나 없이 저렇게 잘한다.
:와·그·래 녀·우·집 디안으·로(/철룽띠·로):지·내 땡·기·네?그거 ·지·일(/·질·이)아이·다.	왜 그렇게 남의 집 뒤안을 지나다니니? 거기 길이 아니다.
고라·아(/또라·아,도라·아)·가·서 서답썩·어 ·오·이·라.	고랑(넛가)에 가서 빨래 해 오너라.
오·올 비빠·알 들·모 고치모중엥·기·로 가·자.	오늘 비가 오면 고추모종 심으러 가자.
·기·암(/·돌·감)따무·우·로 가·자.	(자연산)감 따먹으러 가자.
그사·람 ·기·빡 봉·께(/봉·께·나):밍·질·고 ·밥·복 있겠·다.	그사람 컷불을 보니 명이 길고 밥 복이 있겠다.
·기·빡·마 문·친·다.	컷불만 만진다.
와·아 :사·람·을 거·시·네	왜 사람을 속이니



말투	뜻
까꾸·리 가·아·꼬 갈·비 조·음 검·우 :오·이·라.	갈퀴로 소나무 낙엽 좀 긁어모아 오너라.
그·룩 가·아 :오·이·라.	그릇 가져 오너라.
쫓·깐( : )거실리는 소·리·도 :몬·한·다.	작은 거슬리는 말도 하지 못한다.
안·주 기때·이·가 새과랑기·이 오테·서 :담·배·로·푹·네.	아직 귀가 과란 녀석(어린 녀석)이 어디서 담배로 피고 있니
기잉물통·에 당·가(/당가·아)나·아·라	구정물 통에 담귀 놓아라.
·자·암 ·오·나?·잠·오·모(/·잠·이 오·모):지·지·이·로 한분 :쭈( : )·욱 ·썩·어 ·바·아·라(/:썩·바·아·라)	졸리니? 졸리면 기지개를 한 번 쭉 쳐봐.
까·탈·시·럽·기·는 :한·정·도 :없·네.	까탈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네.
무시가·아·꼬 각대·이 짐·치(/각대이짐·치)조·음 ·담·아·라.	무로 각두기김치 좀 담아라.
오·올 소·이 :올·라·쿠·나.까·안·치·가 :와·저·리 쟈제·이 샴·네?	오늘 손님이 오려나. 까치가 많이 짹짹거리네.
머어 싱·키 무웠·네.:와·아 :자·꾸 깔딱·질·로 ·하·네?	뒤통 숨겨놓고 몰래 먹었나 보구나. 자꾸 딸꾹질을 하네.
검은·콩 조·음 ·갈·아 미·이·라.	검은콩 좀 갈아 먹여라.
강내·이 가·아·꼬 밥·통 티·아 무·우·라	옥수수로 뽕튀기 만들어 먹여라.
칼·클·이 해·놓·고 :사·네.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옷·소·옥·에 :게·끼·가 ·들·가·서 꺼·끄·랍·아 죽·졌·다.	옷 속에 보릿겨(이물질)가 들어가서 걸끄럽다.
주·라·샴·는·거 안조오떠·마·는 가·고 나·양·께(/보내·애 놓·고 낭·께)끼 -꾸·름( : )하·네.	달라고 하는 것을 안주고 보내 놓고 나니 마음이 개운치 않네.
깨소금·판·지·로(/깨소·음·을)·와·이·리 ·또·욱 떠·라·아 나·왔·네?	깨소금 단지를 왜 이렇게 떨어트려 놓았니?
날·에 :우·쨌·그·래 까·뭉·끼·가 :마·이 생·겼·네?	얼굴에 주근깨가 많이 생겼구나.
:두·손·으·로 깨·쫓·배·이·로 잡·고,:톡( : )·톡(/·톡( : )·톡)털·어·라.:그·래·야 밖·으·로(/:한·데·로)안·나·간·다.	두 손으로 깻단을 잡고 툭툭 털어라. 그래야 밖으로 안나간다.

말투	뜻
너어 :들·이·는 사그룩·가 :와·아 대이·모 싸·우·네.	너희 들은 사기 그릇처럼 닿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게·이 몰야·아 노옹·거 꺼들(·)하·모 안·에 ·딜·이 나·아·라. 으·시·에 딜라·아·라.	생선 말려 놓은 것 말랐으면 안에 들어 놓아라. 비 안맞는 곳에 들어 놓아라.
나·락·이 데리디라져·서 터분하·다.까꾸·리 가·아 거부지·기 조·옴 검·어 내·애·라	벼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개운치 않다. 갈고리로 지푸라기 좀 걷어 내어라.
끄시름 조·옴(/끄시·름·조·옴)털·어·라.	그을음 좀 털어라.
보리 ·비·이(/·베·에):넌·데 끌갈·로(/끌여·어·로)가·자. 주·우 목지마·라 걸배·이·텐·다(/거래·이·텐·다,거래이텐·다).	보리 베어 낸 곳에 굽어 내리 가자. 주워 먹지 마라. 거지 된다
·꼬·깨·이·로 문제 ·뿔·분 쫓·아 놓·코 ·깨·이·로 ·파·라(/·파·모 수·웁·다).	곡괱이로 먼저 뿔 번 파놓고, 괱이로 파라(파면 수월하다).
서답 꼬끔(·)하거·등 걸·어 가·아·꼬 자근자·근 불·아·라.	빨래가 덜 말랐으면 걸어서 자근자근 밟아라.
꼬래·이·가(/꼬래이·가)달리·있·나 :와·그·리 :자·꾸 문·을 :덜·단·네.	꼬리가 달려 있나 왜 자꾸 문을 덜 단니?
우리 오·올 산·에 께사·리 쟁·크·로(/껴사리쎁크·로):갈·래?	우리 오늘 산에 고라시 꺾으러 갈래?
반꼬시랑머리하·고 옥·나·난 남·자 :쌩·질 싸·아 납·다·꼬 :조·심·하·라·쿠·데	반곱슬 머리에 덧니난 남자 성질 사납다고 조심하라 하더라.
고오·장·을 조·옴 ·풀·우·라.초·자·이 너무늑·다.	고추장을 좀 풀어라. 초장이 너무 묽다.
:짐·나·모 소두·방 조·옴 열·어 나·아·라.한·짐 나가그·로.	김나면 솔뚜껑 열어놔라. 한 김 나가게.
고고 ·차·암 품·재·이·다.뿔·뿌·이·나 주·라·캐·에·도 조·옴 안주·네.	그것 참 구두쇠다. 몇 번이나 달라고 해도 조금을 안주네.
안·주 꺼·정 :굽·아서 새·디·이·걸·다	아직까지 고와서 새떡같다.
누·발·에 ·이·리 발·꾸·룽·내·가 나·네.	누구 발에서 이렇게 발냄새가 나니?

## &lt;사천의 어휘자료&gt;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ㄱ)		
가근방	(명) 가까운 곳	간폴다	(형) 거칠다
가대이	(명) 초라하고 조그마한 집	갈라목기	(명) 나누어 먹기
가름	(관) 좋은, 아끼는	갈리다	(동) 바퀴에 치다, 헤지다
가리	(명) 가루	갈방니	(명) 가랑니
가리늦가	(부) 뒤늦게	감싱이	(명) 감성돔
가리매	(명) 가르마	가뚝띠	(명) 똑똑한 척 하는 사람
가린다	(동) 나눈다. 구별한다.	갓신하몬	(부) 자칫하면
가메이	(명) 가마니	강구	(명) 바퀴벌레
가메	(명) 가마	강기	(명) 감기
가메솔	(명) 가마솔	개짓대加里	(명) 감기
가무치	(명) 가물치	강내이	(명) 옥수수
가물티다	(동) 빠다	강새이	(명) 강아지
가부	(명) 과부, 홀어미	강지리	(명) 광주리
가분다리	(명) 진드기	개겁다	(형) 가볍다
사개	(명) 가위	개고랑	(명) 개울
가수나	(명) 여자아이	개똥벌거지	(명) 반딧불이
가실	(명) 과일, 가을	개꽃	(명) 진달래
가악중	(부) 갑자기	개떡	(명) 겨로 만든 떡
가웃	(명) 되, 자 등의 반분	개씹	(명) 토라폼(눈병)
가재미	(명) 가자미	개액질	(명) 구역질
가축	(동) 돌보는 일	개오지	(명) 이빠진 사람
간띠이	(명) 간덩어리	개이	(명) 고양이
간섭	(명) 간섭	개적다	(형) 가깝다
간나아	(명) 갓난 아이	개즙치	(명) 호주머니
간지럽다	(형) 가렵다	갱편	(명) 개평
간주루마이	(부) 가지런히	거래이	(명) 거지
간초	(명) 초가지의 옆쪽에 달아낸 방이나 헛간	거무	(명) 거미
		거문같이	(동) 보리를 심지 않은 논을 가는 일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거부장이	(명) 검불	구다이	(명) 구덩이
거시이	(명) 지렁이	구리이	(명) 구렁이
거지다	(동) 걷다	구분다	(동) 구른다
건디기	(명) 건더기	구시	(명) 변소 (명) 구석
걸배이	(명) 걸인, 거지	구실	(명) 구슬
경구지	(명) 금줄	국시	(명) 국수
케기(케이)	(명) 생선, 고기	군대	(명) 그네
게아내다	(동) 게워내다	굴래씨엄	(명) 구레나룻
게울	(명) 겨울	굽비이	(명) 굽병이
겔차주다	(동) 가르쳐주다	굽턱	(명) 지형이 움푹 들어간 곳
쟁기다	(동) 굽기다	궁디	(명) 엉덩이
고까	(명) 때때옷	그다안에	(부) 그동안에
고동애	(명) 고등어	그따우	(부) 그따위
고랑창	(명) 도랑	그라모	(부) 그렇다면
고름	(명) 고름	글쿤다	(동) 일러준다
고래	(명) 아우성	그룩	(명) 그릇
고방	(명) 팡, 창고	거시다	(동) 속이다
고상	(형) 되로 델 때 위로 수북히 해주는 것	그지	(명) 그저께
고오매	(명) 고구마	그그지	(명) 그그저께
고이	(명) 고니	근대	(부) 그래
곡석	(명) 곡식	근질다	(동) 굶다
곤치다	(동) 고치다	금봉	(부) 워낙
골룽	(명) 켈런, 담배	금비내	(명) 금비녀
골뱅	(명) 골병	기경	(명) 구경
곰패이	(명) 곰팡이	기꾸녕	(명) 컷구멍
곱새	(명) 곱추	기드리	(명) 구더기
공골	(명) 콘크리트	기럽다	(형) 그림다
공구다	(동) 괴다	기리기	(형) 그리기
구녕	(명) 구멍	기떡재이	(명) 귀머거리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기목나무	(명) 고목나무	꼬도밥	(명) 고두밥
기미	(명) 입맛, 간	꼬돌빼이	(명) 고들빼기
기티이	(명) 귀퉁이, 구석	꼬랑내	(명) 구린내
기창	(명) 귀창	꼬래이	(명) 꼬리
까꼬막	(명) 오르막 길	꼬장주우	(명) 고쟁이
까꾸리	(명) 갈고리, 갈퀴	꼭대이	(명) 꼭지, 꼭대기
까다	(동) 부화하다	꼴미	(명) 골무
까무꺼	(명) 주근깨	꼼재이	(명) 구두쇠
까디비다	(동) 까서 뒤집다	꼼다시	(부) 고스란히
까망딱지	(명) 주근깨, 문맹	꿍	(명) 꿩
까마구	(명) 까마귀	꿍또바리	(명) 꼴찌
깍지이	(명) 종지	꾸개다	(동) 구기다
칸치	(명) 까치	꾸럼	(명) 꾸러미
칸치밥	(명) 들짚레 열매	꾸릉내	(명) 구린내
깔딱질	(명) 딸꾹질	꿀밤	(명) 도토리
깜비이	(명) 감부기	꿀짐하다	(형) 배가 고프다
깔대이	(명) 대님	꾸리미	(명) 꾸러미
깡새	(명) 질투, 강새암	끄티	(명) 끝
깨고리	(명) 개구리	꿀티이	(명) 그루터기
깨똥구리	(명) 나무의 썩은 밑둥	끼다	(형) 꿩다
깨반하다	(형) 깨운하다	끼리다	(동) 꿩이다
깨이	(명) 꿩이		(ㄴ)
깨배다	(동) 깨우다	나락	(명) 벼
꺼꾸리	(명) 뒤	나리	(명) 나루
꺼정	(조) 까지	나무새	(명) 채소
껍디	(명) 껍질	나부	(명) 나비
깨깡스리	(부) 새삼스럽게	나불	(명) 심한 파도
끼시리	(부) 피스럽게	나사이	(명) 냉이
꼬누우	(명) 고누	낙매	(명) 낙상

사천 언어	표준어
낙주	(명) 낙지
낙숫대	(명) 낙숫대
난중에	(부) 나중에
날긱이	(명) 날이 긱을 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음.
날개	(명) 이영
날물	(명) 썰물
달포리	(명) 하루살이
남개	(명) 나무
내띠다	(동) 나서다
내미	(명) 냄새
내우간	(명) 내외간, 부부사이
내우하다	(동) 내외하다
내치	(부) 늘, 내내
너무집	(명) 남의 집
널찌다	(동남) 떨어지다
넘	(명) 남, 타인
남사스럽다	(형) 부끄럽다. 창피하다
네	(명) 너(2인칭)
노내께	(명) 노끈
노랑조시	(명) 노른자위
노래이	(명) 노랭이, 구두쇠
노리	(명) 노루
노쿤다	(동) 녹인다
녹디	(명) 녹두
눗제가락	(명) 눗젓가락
농띠	(명) 게으름, 게으름뱅이
누릅다	(형) 마렵다
누	(명) 누이
눈살미	(명) 눈썰미

사천 언어	표준어
눈치꾸리이	(명) 천덕꾸러기
느그	(명) 너의
느그매	(명) 너의 엄마
능구리	(명) 능구렁이
늦까	(부) 늦게
니비	(명) 누에
니비다	(동) 누비다
니핀다	(동) 누인다, 뉘히다 (ㄷ)
다듬답다	(형) 야무지다
다리비	(명) 다리미
다문	(형) 다만, 단지
다부	(형) 다시
다불	(명) 다발
닥알	(명) 계란
단디	(부) 단단히
단물	(명) 식혜
달개다	(동) 달래다
달롱개	(명) 달래
달머리	(명) 달무리
단밧대	(명) 담뱃대
당그래	(명) 고무래
달패이	(명) 달팽이
땅나구	(명) 당나귀
대갈빼이	(명) 대가리
대리지다	(형) 건방지다
대이다	(동) 도착하다, 다다르다
더덥이	(명) 말더듬이
덕석	(명) 멍석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데기	(부) 매우, 많이	뚜꺼비	(명) 두꺼비
데다	(형) 고되다, 고단하다	뜨병	(명) 뚜껑
데름	(명) 도련님	떠이간다	(동) 뛰어간다
데블로	(부) 데리러	디안	(명) 뉘안 (口)
데티	(명) 바보	마느래	(명) 마누라, 아내
데피다	(동) 데우다	막내이	(명) 막내
도가지	(명) 독	막살하다	(동) 그만두다
도구통	(명) 절구통	만구	(부) 어디에, 전혀
도롱태	(명) 쿨렁쇠	만날	(부) 늘
도매	(명) 도마	만다꼬	(부) 무엇하여
도치	(명) 도끼	말기다	(형) 말리다
독새	(명) 독사	맛내다	(명) 맛있다
돈내이	(명) 돈나물	맛배기	(명) 맛보기
돌가지	(명) 도라지	망세이	(명) 망아지
동가리	(명) 동강, 토막	메차리	(명) 회초리
동개다	(형) 쌓는다, 포개다	모구	(명) 모기
동승	(명) 동생	머라쿤다	(동) 나무란다
두드리이	(명) 두드리기	머심	(명) 머슴
등드리	(명) 등	메느리	(명) 며느리
디꼬마리	(명) 발뒤축	메띠기	(명) 메뚜기
디다보다	(동) 들여다 보다	맹물짱아	(명) 뱀장어
디빈다	(동) 뒤집다, 뒤지다	모가지	(명) 목
디신하다	(형) 비슷하다	모가치	(명) 뿔
딩기	(명) 등겨	모디	(명) 마디
따시다	(형) 따듯하다	모래고괘	(명) 모래글씨
따바리	(명) 또아리	모린다	(동) 마르다 (동) 모르다
땡뻐	(명) 땡벌	모지래다	(형) 모자라다
떠리미	(명) 떨어		

사천 언어	표준어
모지래이	(명) 수가 어둡고 부족한 사람
몬지	(명) 먼지
몬치다	(동) 만지다
몬다	(형) 험프지 않다
몰	(명) 말
몰미	(명) 멀미
몽창시리	(형) 매우, 죄다
무디기	(명) 무더기
무시	(명) 무
묵다	(동) 먹다
문팬다	(동) 문지른다
문쭈우	(명) 문종이
물외	(명) 오이
물세하다	(동) 없는 것으로 치부하다
미승하다	(형) 메스껍다
미알진다	(형) 알밋다
미긴다	(동) 먹인다
밀창	(명) 미달이
	(ㄷ)
바가치	(명) 바가지
바구	(명) 바위
바구리	(명) 바구니
박상	(명) 튀밥
반지락	(명) 바지락
반주깨미	(명) 소꿉장난
발때죽	(명) 발자국
발통	(명) 바퀴
밤싱이	(명) 밤송이

사천 언어	표준어
방구	(명) 방귀
배때지	(명) 복부, 배
배미	(명) 뱀
배잡다	(형) 비좁다
배액지	(부) 괜히
버긴다	(동) 겨룬다
버겁다	(형) 벽차다
버꺼지	(명) 대머리
버꿈	(명) 거품
버부리	(명) 병어리
배꾸녕	(명) 배꼽
벌거지	(명) 벌레
벌로본다	(부) 대충 본다,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
벨시럽다	(형) 별나다
보도시	(형) 겨우, 간신히
보시	(명) 종기보다 약간 큰 그릇
보재기	(명) 보자기
보탄	(명) 장작을 팬 때 받치는 통나무
보튼기침	(명) 마른기침
복승씨	(명) 복사뼈
볼가지다	(동) 까지다, 알맹이가 튀어나오다
볼티	(명) 볼
부리내키	(동) 부라부라
부식	(명) 부엌
부작대기	(명) 부지깽이
비리	(명) 진땀물
비미이	(부) 어련히
비시기	(부) 비스듬히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비우	(명) 비위	췌	(명) 혀
빠가지	(명) 빠	췌통	(명) 자물통
빠다지	(명) 서랍	췌대	(명) 열쇠
뻑다구	(명) 빠	췌바닥	(명) 헛바닥
빠뿌재이	(명) 질경이	씨락국	(명) 우거지국
빠리하다	(부) 빠딱하다	씨부린다	(형) 종알거리다
	(ㅅ)	씨사이	(명) 소견머리 없는 사람
사구	(명) 옹기	씨암지	(명) 수염
새깨미	(명) 소꿍질	씩는다	(동) 씻는다
사살	(부) 살살	췌다	(형) 쓰다
사마구	(명) 사마귀		(ㅇ)
사심	(명) 사슴	아	(명) 아이, 아기
사우	(명) 사위	아부지	(명) 아버지
사타리	(명) 사타구니	아씨가리	(명) 논의 초벌갈이
삼가락질	(명) 삼거리 길	아재	(명) 아저씨
상그럽다	(형) 위험하다, 불안하다	아적	(명) 아침밥
새디	(명) 새덕	알개미	(명) 아가미
새그릅다	(형) 시다	에나	(명) 진짜
새미	(명) 샘	에민소리	(명) 억울한 소리
새비	(명) 새우	앵구	(명) 고양이
새실	(명) 수다	앵기든다	(동) 달려든다
새첩다	(형) 작고 예쁘다	얌새이	(명) 염소
서답	(명) 빨래	애리다	(형) 여리다
새이	(명) 형	애비다	(형) 여위다
새계기	(명) 쇠고기	어린냥	(명) 어리광
세근	(명) 소견, 철	얼쭈	(부) 거의
세사아	(부) 세상에	엄첩다	(형) 대견하다
소두방	(명) 솔뚜껑	영가	(명) 언니
소시랑	(명) 쇠스랑	영가이	(부) 어지간히

사천 언어	표준어
영캉	(부) 워낙
에나	(부) 참말로
에렵다	(형) 어렵다
앵기다	(동) 안기다
여나암시	(명) 여남은명
여렵다	(형) 나이가 격에 맞지 않은 행동
앵기다	(동) 안기다
역부리	(부) 일부러
오가리	(명) 옹기
오금재이	(명) 오금
오랍씨	(명) 오라버니
오좁	(명) 오좁
올채이	(명) 올챙이
왕기	(명) 왕겨
요룽	(명) 요령
용심	(명) 휘방하는 마음 또는 행동
우개	(명) 위
우렁시이	(명) 우렁이
우사	(명) 창피
우짤	(관) 어떤
우찌	(부) 어찌
우터렵다	(형) 위태롭다
우통	(명) 윗도리
은자	(부) 이제
이께	(명) 미끼
이바구	(명) 이야기
이우지	(명) 이웃
이장	(명) 농기구
일발시다	(동) 일으키다

사천 언어	표준어
이킨다	(동) 웃긴다 (ㄱ)
자분다	(동) 졸다
자새	(명) 얼레
잔아부지	(명) 작은아버지
잡티	(명) 잡꾸러기
장개	(명) 장가
장닥	(명) 수탉
장구다	(동) 잠그다
재그릅다	(형) 간지럽다
재앵구	(명) 자전거
저녁담에	(명) 저녁때에
젓미기	(명) 젓먹이
점빵	(명) 점포, 가게
정지	(명) 부엌
정때	(명) 오후
제까락	(명) 젓가락
제리다	(동) 저리다
조구	(명) 조기
종우	(명) 종이
종내기	(명) 짐승의 품종
주개	(명) 주걱
주디	(명) 주둥이
주묵	(명) 주먹
주운자	(명) 주전자
쭈치	(명) 주머니
중신애비	(명) 중매쟁이
지기미	(명) 비듬
지미	(명) 기미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지끼미	(부) 각자	치아다	(동) 치우다
지라다	(동) 기르다	치키본다	(동) 눈을 치켜세워 본다
지업다	(형) 지루하다	칩다	(형) चु다 (ㄱ)
지심매다	(동) 김매다	칼빠	(명) 정강이뼈
지푸다	(형) 깊다	칼클하다	(형) 깨끗하다
짐치	(명) 김치	커리	(명) 켈레
징키다	(동) 지키다	코티	(명) 콧등
짜리다	(형) 짧다	콧잔디	(명) 콧잔등
짜매다	(동) 묶다	콩지름	(명) 콩나물 (트)
짤기다	(동) 지리다	타개다	(형) 닳다
짤래비	(명) 잠자리	타리박	(명) 두레박
째보	(명) 언청이	태가리	(명) 턱, 옹기의 주둥이
쫘뻐하다	(형) 뽕족하다	택	(명) 턱
짜끌스리	(형) 형편없이	택도없다	(구) 어렵도 없다
짱깃다	(동) 끼었다 (ㄷ)	터래기	(명) 털
찰나락	(명) 찹쌀	털팔이	(명) 행동에 실수가 잦은 사람
차리반다	(형) 장난기가 많다	토간이	(명) 토끼
차포	(명) 차표	통대구	(명) 마른대구
잡다	(형) 차갑다	통사	(명) 애꾸
참꽃	(명) 진달래	통시	(명) 화장실
채에다	(동) 치우다	통수	(명) 피리
채에주다	(형) 빌려주다	트름	(명) 트림
처매	(명) 치마	티전	(명) 투전 (표)
천상	(부) 할 수 없이	파이다	(형) 좋지않다
천지다	(형) 아주 많다	패	(명) 파
춘세	(명) 춘녀	판때기	(명) 판자
춤	(명) 침, 타액		
치매	(명) 치마		

사천 언어	표준어	사천 언어	표준어
팔피이	(명) 팔푼이	항칠	(명) 낙서
패엑스럽다	(형) 불량스럽다	해꼬지	(명) 해코지
패이	(명) 팽이	해치구디	(명) 수렁
퍼지았다	(동) 주저앉다	핵고	(명) 학교
팽풍	(명) 병풍	행토	(명) 나쁜 행실
포래	(명) 파래	허들	(명) 엄살
포리	(명) 파리	헛새비	(명) 허수아비
폴	(명) 팔	허괘	(명) 허괘
푼니파리	(명) 푸성귀	헐타	(형) 값이 싸다
폴꼭새	(명) 빠꾸기	헤시다	(동) 헤집다
풍개	(명) 자두	호부래비	(명) 홀애비
	(ㅎ)	훤는다	(동) 훤는다
하근내	(명) 불에 타는 냄새	흥덕구	(명) 엉덩귀
하닥	(명) 화로	후재	(명) 먼 훗나
하리	(명) 하루	훗모래	(명) 모래글피
하모	(감) 그림	흘빈하다	(형) 거의 비었다
한그속	(부) 가득, 많이	히비다	(동) 후비다
한질	(명) 넓은 길	히안타	(형) 신기하다
할바시	(명) 할아버지	힌창	(명) 흰자위
함부리	(형) 함부로		

## 4. 사천의 주요 산업

### 가. 농수산물

#### 1) 단감



감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과실로 풍부한 무기질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과실이다. 또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이뇨 작용에도 효과적이다. 감에는 카로틴(비타민 A를 함유한 황적색의 색소)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C는 껍질의 두 배나 되는 양을 함유하고 있다. 체내에서는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과 비

타민 C의 상승효과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 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감은 옛날부터 한방(漢方)에서 감꼭지를 말려 딸꾹질에 달여 먹고, 땀감의 즙액은 뱀, 벌, 모기 등에 물린데 바르기도 하였다. 본초비요(本草備要)에서는 감을 깎아 말린 꺾임을 자라와 허파의 혈분약으로 사용하였고 기침을 그치게 하며, 숙혈을 없애고, 폐열, 혈도, 반위(구역질), 장풍(창자 꼬임)과 치질을 다스리는데 쓰여 왔다.

의학적으로 과실 및 감잎의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활성과 함께 뱀의 독소 및 박테리아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 면역기능 회복작용, 활성산소 제거 작용 등을 하며 발암물질의 활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감잎으로부터 분리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에서 고혈압 활성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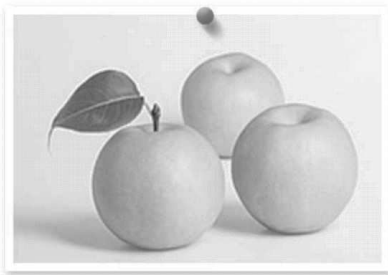
감 과실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은 식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A와 C의 1일 필요량은 감 1개를 먹으면 충분히 섭취된다. 비타민 C는 과실보다 감나무 잎에서 더 많은데, 감잎으로 만든 차는 비타민 A와 C를 공급하는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단감을 재배한 시기는 1920년대 초기부터라 할 것이며, 그때 일본인 <다양>이라는 사람이 정동면 풍정리 옥산(현 삼성항공아파트) 동북쪽에 약 1,000평 규모의 과원을 조성하고 일본에서 도입한 단감의 부유(富有)라는 품종을 재배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30년부터 수청부락의 최원경씨가 700여 평의 과원을 조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정동면이 대규모의 과수단지화한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일본인 <다양>이 조성한 과원은 해방 후 작고한 최병두씨가 관리하다가 노목으로 제거되고 지금은 무논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감을 경제성 있는 과수로 본격적인 재배를 시도한 사람은 고읍부락의 문효찬씨이며, 그는 1970년대 초반부터 4,000평의 과원을 조성하고 아울러 묘목을 다량 생산 보급하면서 이로부터 급격히 재배면적이 확산되어 이른바 단감 붐이 일어났던 것이며, 지금은 최고의 소득작목으로서 서부 경남 최대의 주산단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단감의 품종은 부우가 85%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서촌(조생종)이 12%, 기타 3%이다.

## 2) 배



배는 칼리,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의 함량이 74%를 차지하고 인이나 유산 등의 함량이 25% 정도로서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배나 배 가공품을 많이 먹는 것은 우리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시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배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배(야생종)가 재배되고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민요술(AD 530~550)에 배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고 고려 명종 18년에는 배나무를 심어 소득을 높이도록 나라에서 권장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조 성종(1469~1494)때는 주요 과수로 배가 재배되었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골라서 진상품으로 나라에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강희안의 저서인 청천양화록에 의하면 거름주기, 관수, 접목 등의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홍만선(1643~1715)이 지은 산림경제서에 원예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을 보면 이식방법, 실생법, 삽목법, 병해충 방제 등의 재배기술이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나 남부지방에서는 일종의 재래 배라 볼 수 있는 청실리, 황실리 등이 재배되었으나, 경제적인 재배를 위한 일본 배 재배는 1906년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대부분의 배 재배 품종이 일본 배 품종인데 이는 일본 배가 우리나라 풍토에 알맞고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시는 1970년 초반 정동면 풍정, 수청 그리고 남양동에서 처음 재배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품종은 신고로 재배되어 오다가 199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Y자 밀식 재배사업이 권장되면서 3~4년에 걸쳐 급속히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현재 81.9ha에 재배되고 있다.

## 3) 전어



‘전어 한 마리가 햅쌀밥 열 그릇 죽인다.’, ‘전어 머릿 속에는 깨가 서 말’,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등 전어에 대한 표현이 다양한 것만 봐도 동서고금을 막론한 전어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짐작할 수 있다.

전어는 남해안 및 서해안 곳곳에서 다량으로 잡히는 고기이며,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사천 대포마을은 우리 시에서 전어 축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마을이며, 대포마을 주민들은 100가구 중 30가구 이상이 전어 조업으로 생계를 꾸린다.

전어 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바빠지는데, 배를 끌고 나가 10~20분 정도 그물 작업을 하면 하루 팔 양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대포마을은 전어가 많이 잡히기로 소문난 마을이다. 현재 사천시 전어 축제는 삼천포항으로 옮겨가 팔포 음식특화 지구에서 매년 7~8월쯤 열리며,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한 여름 햇전어를 이용한 전어회, 전어회무침, 전어구이 등 다양한 전어요리를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

사천시 서남편에 위치한 섬인 마도(馬島)에서 전어잡이를 위해 불리던 어로노동요인 마도갈방아소리가 있다. 마도갈방아소리는 사천시 동서동에 딸린 작은 섬인 마도에서 불린 것으로 면사(綿絲)로 만들어진 전통적 그물에 ‘갈’을 먹이기 위하여 소나무 껍질에 방아질을 할 때 부르던 노래이다. 마도갈방아소리는 2004년 3월 18일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마도 주민들의 민속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 4) 멸치



죽방렴 멸치는 전통적인 어법인 '죽방렴'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말뚝을 통해 생산되는 멸치이며, 사천의 특산물이다. 일반 멸치처럼 그물로 잡지 않고, 남해안의 청정해역의 빠른 유속에 의해 멸치들이 죽방렴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비늘이나 몸체 손상 없이 건져 올릴 수 있다. 죽방렴 설치와 어장면허가 제

한되어 있어 소량만이 생산 가능하고, 고영양 플랑크톤이 서식하는 남해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기름기가 적어 비린내가 나지 않는 고급 멸치이다. 죽방렴 멸치는 일

정한 크기의 우수한 암놈 멸치만 가려 말리며 불통 속에 잡힌 멸치 가운데 길이 7cm짜리 암놈과 은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멸치만 엄선한다.

특히 지느러미는 물론이고 멸치 외형이 단 한 곳도 손상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 어민들이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불통에서 육지 건조장까지 옮기는데 멸치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적은 양을 자주 옮겨야 한다. 멸치는 성질이 급해 뜰채로 올리자마자 죽지만 죽방에서 육지건조장까지 옮기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이 시간이면 거의 살아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성장에 도움을 주어 성장 발육에 좋으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또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

## 나. 항공우주산업

사천시는 1953년 최초의 국산항공기 부활호의 제작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장소로 첨단과학과 미래 산업으로 대표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천 제 1,2 일반산업단지 및 종포일반산업단지 내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여 5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항공우주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항공특성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등을 유치하여 항공전문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가 하면 사천공항과 제3훈련비행단이 위치해 있어 명실공히 국내 유일한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경남사천센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센터 등 항공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2010년 3월 삼천포공고가 항공·조선·기계마이스터고로 새롭게 태어났다.



## &lt;항공 기업 현황&gt;

(2022년 3월 기준)

순번	회사명	용지면적 (m <sup>2</sup> )	입주단지명	공장등록일	생산품
1	금강항공	3,251	개별	2017.03.09.	오토리벳
2	(주)낙우산업사천	6,326	사천외국인투자지역	2011.11.10.	항공기치공구
3	남도공업사	1,750	개별	2020.11.23.	농기계부품, 방산부품, 철구조물
4	(주)남양정밀	2,710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7.01.30.	항공기부품
5	대신항공	10,52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2.13.	항공기 기체 조립
6	대화항공산업	-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장미등록	항공기부품
7	동영 M&T	7,16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12.05.15.	항공기부품
8	두방산업(주)	2,270	개별	2004.07.11.	항공기부품
9	디엔엠항공	11,020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1.07.	항공기부품
10	(주)라코	10,617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11.04.21.	항공기부품
		21,647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2018.05.28.	
11	리치메탈즈	2,665	사천축동구호농공단지	2016.11.25.	항공기용 알루미늄 소재
12	마이크로엔지니어링	2,624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3.14.	항공기부품
13	만물공작소	-	개별	공장미등록	항공기부품, 무인항공기
14	미래항공(주)	6,893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9.26.	항공기날개조립
15	(주)부성	8,777	개별	1996.12.13.	항공기동체부품, 항공기용치공구
		24,650	개별	2014.05.01.	
16	비에스아이	2,70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9.09.09.	항공전용WIRE
17	삼흥정공(주) 사천공장	13,873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10.10.	항공기부품조립
18	(주)샘코	11,980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9.30.	항공기부품
		6,762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11.11.03.	
19	(주)세우항공	12,945	사천사남농공단지	2011.06.27.	항공기용Tube조립
20	송월 주식회사	19,914	개별	2017.02.08.	항공기부품
21	수테크	2,391	개별	2014.09.19.	항공기부품
22	씨엔리(주)	7,446	개별	2011.12.19.	항공기복합재부품
		11,372	사천중포일반산업단지	2018.05.15.	
		-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19.12.24.	
23	(주)아스트	24,589	사천사남농공단지	2001.12.29.	항공기부품
		13,517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19.05.08.	
24	(주)에이에스티지	114,307	사천중포일반산업단지	2017.03.21.	항공기 후방동체부품

순번	회사명	용지면적 (㎡)	입주단지명	공장등록일	생산품
25	에스엔케이항공(주)	30,750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2007.01.22.	항공기날개,동체부품
26	에스에스코리아	19,924	개별	2010.10.21.	항공기부품
27	(주)에어로메스터	6,676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1.29.	항공전자
28	(주)에어로오토	1,167	개별	2013.11.27.	오토리벳
29	에이원	3,317	사천사남농공단지	2015.11.17.	항공기 치공구
30	에이케이항공	3,142	사천중포일반산업단지	2018.03.23.	항공기 도어부품
31	에이티테크(주)	7,38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7.11.23.	항공기 치공구
32	(주)오이	-	KAI입주기업	공장미등록	항공기부품 조립
33	(주)윙곡 사천공장	25,193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2012.09.14.	항공기 부품
34	장안항공산업	2,752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1.18.	항공기부품
		3,550	사천사남농공단지	2016.07.07.	
35	(주)조일	7,525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1.17.	항공기부품
36	(주)지브이엔지니어링	7,057	개별	2019.10.04.	항공기부품
37	(주)카프마이크로	8,442	사천외국인투자지역	2014.10.23.	항공기용 시뮬레이터
38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29,677	사천외국인투자지역	2014.01.29.	항공기부품
		16,510	사천중포일반산업단지	2019.03.18.	
39	(주)에어로코텍 사천공장	7,54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5.16.	항공기부품
		16,872	사천사남농공단지	2017.02.22.	
		7,034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17.02.03.	
40	프라이드산업 2공장	1,365	개별	2017.07.24.	항공기 치공구
41	피앤엘	13,314	사천외국인투자지역	2012.08.08.	항공기부품
42	하은테크(주)	3,054	사천두량(전문)농공단지	2008.01.11.	항공기 치공구
43	하이즈항공(주)	13,68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2008.02.12.	항공기체조립
44	한국복합소재(주)	11,215	개별	2014.05.22.	항공기부품 가공 및 조립
45	(주)한국비철	9,885	사천사남농공단지	2015.07.23.	항공산업용 알루미늄
46	한국표면처리(주)	16,560	사천중포일반산업단지	2017.04.05.	항공기부품 도장
47	한국항공서비스(주)	122,565	개별	2019.01.16.	항공기정비
48	한국항공우주산업(주)	664,757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2000.01.07.	항공기 및 기체부품
49	로드테크	466	개별	2017.05.17.	항공기부품
50	신일산업개발	785	개별	2020.02.27.	항공기부품
51	위더스항공	-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공장미등록	항공기부품

## 5. 문화·관광

## 가. 문화재

## 1) 개관

## &lt;문화재 지정현황(총괄)&gt;

(2022년 8월 기준)

총계	국가지정					등록	도지정					
	소계	보물	천연 기념물	사적 지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57	11	5	3	1	2	1	45	13	3	16	1	12

## &lt;문화재 현황&gt;

구분	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면적	지정일자
국가지정	보물	사천 홍사리 매향비	곤양면 홍사리 산48	2㎡	78.03.08.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백천길 326-2	1점	95.01.10.
		조선왕조의례(2016-4)	용현면 시청로 77	3건3책	16.05.03.
		육조대사법보단경	백천길 326-2	1책	20.04.23.
		달마대사관심론	백천길 326-2	1책	22.04.26.
	천연 기념물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곤양면 성내리 194-1	424㎡	82.11.04.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	신수동 산 33-2	9,025㎡	06.12.05.
		사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목채 산지	서포면 선전리 산20 공유수면지선	400㎡	21.08.13.
	사적지	사천늑도유적	늑도동 일원	250,671㎡	03.07.02.
	무형 문화재	진주 삼천포농악	용현면 선진길 467	박염,김선옥	66.06.29.
가산오광대		용현면 선진길 467	한우성	80.11.17.	
등록문화재	사천 다솔사 괘불도	곤명면 다솔사길 417	1점	14.10.29.	
도지정	무형 문화재	판소리 고법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85.01.14.
		판소리 수궁가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85.01.14.
		사천마도갈방아소리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박용준	04.03.18.
	유형 문화재	사천 다솔사 보안암 석굴	곤양면 만점안길 217	770.5㎡	72.02.12.
		사천 다솔사 대양루	곤명면 다솔사길 417	4,634.8㎡	74.02.16.
		사천향교	사천읍 사천향교로 25	2,472.9㎡	83.08.06.
		곤양향교	곤양면 향교길 43-31	1,585.8㎡	83.08.06.
사천 삼천포 매향암각	향촌동 산 46-1	532.5㎡	93.01.08.		

구분	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면적	지정일자
도 지 정	유형 문화재	사천 백천사 불교전적류	백천길 326-2	3책	10.10.07.
		사천 백운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하)	사천읍 토촌길 181-15	1책	15.01.15.
		사천 백운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4)	사천읍 토촌길 181-15	1책	15.01.15.
		사천 백운암 대방광불화엄경	사천읍 토촌길 181-15	1권19장	15.01.15.
		사천 백천사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백천길 326-2	1책	18.06.21.
		사천 구산사비	사천읍 구암리 산43번지	1기(1.5㎡)	18.08.09.
		사천 백천사 대방광원각약소주경	백천길 326-2	1책	18.12.20.
		사천 백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백천길 326-2	1구, 일괄	20.05.21.
	기념물	사천 세종대왕 태실지	곤명면 은사리 산27	446.4㎡	75.02.12.
		사천 단종 태실지	곤명면 은사리 438	4,954㎡	75.02.12.
		사천 신벽동 지석묘	신벽동 494	869㎡	77.12.28.
		사천 덕곡리 지석묘군	용현면 덕곡리 136-1일원	1,872.4㎡	79.12.31.
		사천 조명군총	용현면 선진리 402	1,534㎡	85.11.14.
		사천 성황당산성	정동면 예수리 산45-1일원	58,098.7㎡	93.12.27.
		사천 연천숲	사남면 사남로 396	800㎡	94.07.04.
		사천읍성	사천읍 수양공원길 51	4,984.8㎡	94.09.26.
		사천 안점산봉수대	용현면 신복리 산4	2,480㎡	98.01.15.
		사천 우산봉화대	곤양면 남문외리 산1	1,796.6㎡	98.01.15.
		사천 금성리토성지	곤명면 금성리 산40,일원	27,255㎡	98.01.15.
		사천 용산리사지	곤명면 용산리 334,335-1	11,106㎡	98.01.15.
		사천 와룡동사지	와룡동 279 일원	10,346㎡	98.01.15.
		사천 우천리도요지	사남면 우천리 1380 일원	37,664㎡	01.05.03.
		사천 사촌리 도요지	사남면 사촌리 산20-3일원	22,714㎡	01.05.03.
	사천 자혜리 갯지렁이 화석산지	서포면 자혜리 산29지선공유수면	300㎡	02.06.07.	
	민속 문화재	사천 가산리 석장승	축동면 가산리 626-1외1	25.5㎡	74.12.24.
	문화재 자료	사천 구계서원	사천읍 구암두문로 361-17	1,251.5㎡	83.08.06.
		사천 대방진 굴항	대방동 250	4,621.1㎡	83.08.06.
		사천 각산산성	대방동 산40	7,093.3㎡	83.08.06.
		사천 각산봉수대	대방동 산2	896.7㎡	83.08.06.

구분	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면적	지정일자
도 지 정	문 화 재 자 료	사천 환덕리 조씨고가	곤양면 환덕안길 32	1,336.6㎡	85.01.14.
		사천 다솔사 극락전	곤명면 다솔사길 417	81.8㎡	85.11.14.
		사천 다솔사 응진전	곤명면 다솔사길 417	77.3㎡	85.11.14.
		사천 경백사	용현면 온정2길 42	1,060.3㎡	97.02.13.
		사천 선진리성	용현면 선진리 770 일원	61,818.9㎡	98.11.13.
		사천 백천사 신증탱	백천길 326-2	1폭	10.10.07.
		사천 백천사 아미타후불탱	백천길 326-2	1폭	10.10.07.
		사천 김해김씨 삼현과 문중 호구단자	사천읍 사주2길 31-1	14점	17.04.13.

## 2) 사천의 주요문화재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b>진주 삼천포농악</b>	용현면 선진길 467	66.06.29.



1966년 6월 2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당시에는 농악12차라 하였으나 1986년 진주농악으로, 1993년 삼천포농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걸림굿과 두레굿 등의 가락을 12종 36가락으로 구성 정립한 12차의 판굿으로, 2004년 현재 설장고 박

염과 상쇠 김선옥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영기·농기·나발·팽과리·징·북·장고·버꾸·양반·포수·집사·농군·가장너·무동 등으로 편성되며 치배들은 흰색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매고 전립을 쓴다. 쇠가락은 홀다드래기·겹다드래기·삼채다드래기·영산다드래기·잔다드래기·덧뵈기·판굿길군악·길군악·오방진가락·호호굿가락 등이 있다. 구성은 12차 기본 악장에 36가락을 원칙으로 굿의 규모나 상쇠의 견해에 따라 가감된다. 1차는 오방진(반 덧뵈기 자락), 2차는 얼림굿(느린 덧뵈기 자락), 3차는 덧뵈기 범고놀이, 4차는 길군악, 5차는 영산다드래기, 6차는 멧 범고놀이(빠른 삼채다드래기), 7차는 등맞이굿, 8차는 풍류굿, 9차는 호호굿, 10차는 개인 영산놀이, 11차는 별굿놀이, 12차는 팔진해무진굿(허튼굿) 등이다. 가락이 빠르고 남성적이며 북놀음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연풍대·지반뒤집기 등의 묘기가 특징이다.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b>가산오광대</b>	용현면 선진길 467	80.11.17.



조창(漕倉)오광대라고도 한다.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되었다. 진주(晋州)오광대의 한 분파로 여겨지며, 통영(統營)이나 고성(固城)의 것보다 고�형(古形)으로 알려진다.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 9시경부터 자정까지 연희(演戲)되며 그 해의 안녕과 행운을 비는 일종의 동제의식(洞祭儀式)이다.

어느 봄날 남강(南江)의 지류로부터 껌짝 하나가 표류해 와서 열어보니 그 속에 탈과 오광대극본이 들어 있어 당시 그 곳 목섭에 귀양온 서울 사람에게 보였더니 극본을 읽어주고 놀이를 가르쳐주어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각 마당의 이름은 첫째마당 오방신장무, 둘째마당 영노, 셋째마당 문둥이, 넷째마당 양반, 다섯째마당 중, 여섯째마당 할미·영감으로, 주제는 과거승에 대한 조롱과 양반·관료층에 대한 비판, 처첩(妻妾) 관계의 폭로를 통한 봉건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다. 가산오광대의 특징은 다른 지방에는 없는 오방신장무가 있는 점이며, 영노탈이 사자 모양과 같아 통영오광대의 사자무를 겸하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지정 보물	<b>사천 흥사리 매향비</b>	곤양면 흥사리 산48	78.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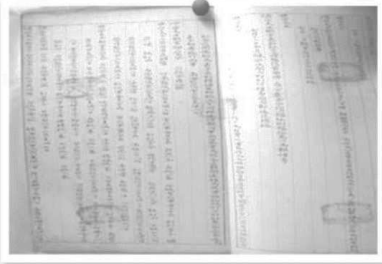



매향비란 향나무를 땅에 묻고 그 위에 비를 세워 두는 것을 말함인데 다시 말해서 내세의 발원(소원을 비는 것)을 위하여 향을 강이나 바다에 잠기게 묻고 그 사실을 돌에 새겨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비를 말한다.

이 비는 고려 말 우왕(禡王) 13년(1387)에 세워진 것으로 자연석 위에 17행 204자를 새겼다. 오랜 시간

비바람에 닳아서 없어진 부분이 많은데, 다행히도 판독되지 않은 글자는 하나밖에 없다. 정치가 혼란하던 고려 시대 말에 승려를 중심으로 4,100명이 계(契)를 조직하여 나라의 평안함과 백성의 안녕을 빌고자 매향 의식을 치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승려 달공이 문장을 짓고 수안이 글씨를 썼으며 김용이 새겼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매향비 중 매향 의식과 관련된 비석은 세 곳 뿐이며, 이 비석은 매향비를 세운 목적과 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어서 가치가 매우 높다.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지정 보물	<b>조선왕조의례(2016-4)</b>	용현면 시청로 77	16.05.03.
 <p>의례(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국가전례의 따라야 할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p> <p>〈조선왕조의례(朝鮮王朝儀軌)〉는 조선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국가기록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이다.</p> <p>경상남도 사천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례는 3건 3책으로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례』,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수개의례』, 『세종대왕단종대왕태실표석견립시의례』이다. 분상용이지만 유일본이며 완질본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선조 34년(1601) 3월에 작성된 『세종대왕태실석난간수개의례(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는 현존하는 조선왕조의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의례이다.</p>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지정 사적지	<b>사천 늑도유적</b>	늑도동 일원	03.07.02.
 <p>늑도는 사천시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도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으로 섬 전체에 대규모의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p> <p>이 유적은 1979년부터 부산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1985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발굴을 실시하여 많은 유적과 유물, 유구가 확인되었다.</p> <p>발굴조사 결과 패총과 무덤유구, 주거지 등과 함께 각종 토기류(중국계 경질토기, 일본계 야요이토기, 점토대 토기 등), 반량전, 오수전, 한(漢)나라 거울 등 13,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된 결과로 볼 때 이 유적은 섬 전체가 청동기 시대에서 삼한시대로 이어지는 단계의 삼각형 점토대 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적이다.</p> <p>사천 늑도유적은 고대국가 초기단계에 형성된 복합유적으로서 한·중·일 간의 고대 동아시아지역 문화교류 증거를 보여주는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p>			

구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b>사천 성내리 비자나무</b>	곤양면 성내리 194-1	82.11.04.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의 내장산 이남과 일본에서 자란다. 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열매는 구충제 및 변비 치료제나 기름을 짜는데 쓰인다.

사천 성내리의 비자나무는 나이가 300년 정도된 것으로 추정(지정일 기준)되며, 높이 19m, 둘레 3.85m로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곤양군청사의 정문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지금은 곤양면사무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암나무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일부 가지에 수꽃이 달린다고도 한다. 약 1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수나무 한 그루가 있다.

사천 성내리의 비자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살아온 나무로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나. 축제

축제명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	시기	4월
	<p>싱싱한 수산물이 펄떡이며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삼천포항의 생동감 넘치는 축제로 수산물 창작요리 경연대회, 맨손 붕장어 잡기, 요트 승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p> <p>◇ 주소: 팔포항(사천시 동금동 158-54) 일원 ◇ 관리기관: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추진위원회</p>		



축제명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시기	7월
	<p>사천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어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축제에서 맛보는 여름 전어는 가을 전어보다 더 진한 향과 맛을 자랑한다.</p> <p>◇ 주소: 팔포1길 65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 ◇ 관리기관: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추진위원회</p>		
축제명	사천 에어쇼	시기	10월
	<p>블랙이글스와 해외민간 곡예비행팀의 화려한 에어쇼를 중심으로 항공대회, 항공우주 관련 체험·교육, 항공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전시·홍보관, 학술회의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p> <p>◇ 주소: 사천 비행장 일원 ◇ 관리기관: 사천 에어쇼 추진위원회</p>		
축제명	와룡문화제	시기	10월
	<p>와룡문화제는 1958년 시작한 사천문화제(사천수양제)와 1960년에 시작한 향토문화제(한려문화제)를 합한 축제이다. 이 축제는 1995년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해 사천시로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천년의 사천(泗川), 미래를 밝히다'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p> <p>◇ 주소: 사천시청 일원</p>		

축제명	<b>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b>	시기	10월
		<p>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축제로 사천시 우수 농·축·특산물 전시와 할인 판매,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p> <p>◇ 주소: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                  ◇ 관리기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추진위원회</p>	

축제명	<b>곤양비봉내축제</b>	시기	11월
		<p>곤양비봉내축제는 조선시대 495년 동안 곤양군의 중심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곤양군의 위상을 되찾고, 곤양인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져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가 마련된 축제이다.</p>	

**다. 교육 인물**

1) 구암 이정(李楨: 1512~1571)

조선 명종 때의 문신·학자, 공의 휘(諱)는 정(楨)이요. 자는 강이(剛而)며, 호는 구암(龜巖)으로 본관은 사천이다. 전형적인 토성사족(土姓土族)의 조상 세거지인 사천현 구암동에서 담(湛)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부조로부터 가학을 전수 받아 기초적인 학문과 경전을 배운 바탕 위에서 행실을 닦을 줄 알았으며, 마침 사림계의 명사인 규암(圭庵) 송인수가 직도(直道)로 주장하다가 조정애 용납되지 못하고 쫓겨나 사



천에 귀양 와 있었으므로, 공이 그에게 나아가 성리학을 배웠다. 학문을 완성하여 25세 때인 1536년(중종 31) ‘축망부(祝網賦)’로서 문과별시에 장원급제, 3월에 처음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그 해 7월에는 군기시주부를 거쳐 9월에는 사헌부감찰이 되었고 그 이듬 해 4월에는 선교랑, 9월에는 승훈랑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외교관으로서 국제적 안목을 넓혔을 뿐 아니라 특히 송학(宋學)에 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옴으로써 뒷날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6년 뒤에 예조 정량을 역임한 뒤 1541년(중종 36) 정월에 최초의 외직인 경상도 영천군수가 되어 그곳에 5년 임기를 다 채웠다. 이때 구암은 영천군수로서 민풍순화·지방교육 진흥 등 많은 치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퇴계학파의 본 고장인 안동권에 수령으로 재임하면서 그 곳 명현들과 교유할 수 있었고, 처음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을 제자의 예로 방문, 사제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구암과 퇴계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고만(考滿)에, 관찰사가 잘 다스린 정적(政績)을 계문하니, 품질(品秩)을 올려주었다. 1546년(명종 1) 2월에 군자감 첨정(僉正)을 거쳐 5월에 정3품계에 승진되고 9월에 평안도 속천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을 걸군(乞郡)하여 선산부사(善山府使)가 되었다. 관내를 자주 순찰하여 민정을 살피고 선정을 베풀고 야은(治隱) 길재(吉再)의 사당을 배알하고 사당을 정비하는 한편 야은의 유적지를 탐방할 때마다 시로서 유덕을 칭송하였다. 이듬해 부민(府民)이 자기의 누이가 억울하게 사형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는데, 감사는 극력 사형을 주장하였으나 공은 그의 억울함을 밝히다가 뜻이 맞지 않자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이에 감사는 조정의 승인도 받기 전에 임소를 멋대로 버렸다는 구실을 부쳐 기한내 다른 관직에 제수되지 못하게 하였다. 을사사화 때는 외직에 있었고, 선산부사 1년 미만의 기간, 향거(鄉居)하면서 스승 송규암(宋圭庵)과 어관포(漁灌圃)를 추모하는 찬(贊)과 시를 남겼고 구암가(龜巖歌) 등 많은 시를 지었다. 또 집에 있는 지 3년에 선부군(先府君)이 죽었는데, 그 장제(葬祭)와 거상(居喪)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들 예를 안다고 감탄하였다.

복(服)을 마치고 1552년(명종 7) 6월에 공주목사(公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몸의 허약으로 부임하지 못하였고, 8월에 홍문관 응교를 거쳐 9월에는 성균관 직장에서 다시 사성(司成)에 승진되자 대사성(大司成)에 제수된 퇴계 이황(李滉)과 함께 동사(同仕)하니, 이에 상사(庠舍)의 학사들이 많이 학예에 흥기하였다. 이 해 10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부임하였다. 1556년(명종 11) 1월 건강을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3년 간

선정을 베풀어 크게 잘 다스려졌으므로 명종이 훌륭하게 여겼고, 또 공의 행의(行誼)를 상문하였으므로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로 발탁하였으며, 주민들은 공의 선정을 기리고 비를 세워 애모하였다. 그 뒤 관직을 사양하고 향거하면서 한때 부호군을 제수받았으나 모부인의 봉양을 위해 주로 고장 사천에서 살았고, 1558년(명종 13) 4월에는 남명(南冥)·황강(黃江) 등과 함께 쾌재정(快哉亭)에서 만나 섬진강을 거슬러 지리산을 등반하였는데 거기에 관한 행정은 남명의 '유두류록(遊頭流錄)'에 잘 표현되어 있다.

48세 때인 1559년(명종 14) 6월, 우부승지를 시작으로 승정원 승지로 근무하면서 좌부승지·좌승지 등을 역임하여 왕명을 출납하는 시종지신으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셨다. 일찍이 고향에 있는 모부인(母夫人)을 뵈러 갈 적에는 명종이 공의 집에 늻급(廩給: 관에서 돈과 곡식을 지급하는 것)하도록 경상도 감사에게 하명하여 공의 효성을 포장(褒獎)하였다. 1560년(명종 15) 5월 병조참의로 승진되었다가 곧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정3품)에 재배되어서는 글을 올려 치도(治道)를 논하였으나, 구암 자신은 그러한 요직을 탐탁해 여기지 않은 끝에 그 직을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상호군·호조참의·예조참의를 거쳐 그 해 9월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었고, 곧 이어 12월에는 3대 추증(追贈)이란 특전을 받았다. 경주부윤으로서 2년 여 재직하면서 구속(舊俗)을 문고 폐정을 다스리는 한편, 신라 역대 왕의 묘를 크게 수축하고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왕의 묘에는 특별히 제사를 지냈다. 또 중요 문제는 퇴계의 자문을 구하면서 직접 수령으로 월경까지 하여 도산서당을 수차 방문하는 한편, 서신을 왕래하면서 서악정사(西岳精舍)를 짓고 제생(諸生)을 모아 학문을 강하니, 이에 동도(東都)의 교육이 성대하다 칭송되었다.

52세 때인 1563년(명종 18) 1월에 경주부윤의 임기를 마치고 들어와서는 9일에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그 해 11월에 다시 나아가 순천부사(順天府使)가 되었다.

전에 폐주 연산군이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한 때의 현인명사(賢人名士)가 많이 죽었는데,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도 이곳으로 귀양 와 있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한훤당의 유적으로는 옥천(玉川)가에 임청대(臨淸臺)가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대를 보면서 비통해하였고, 부성(府城) 서쪽에도 유적이 있는데, 공이 2년 여 재직하면서 김굉필과 조위(曹偉)의 유적을 탐방하고 경현당(景賢堂)을 세워 제사지냈다. 이어서 한훤당의 유문과 사적을 수집, 정리하여 <경현록(景賢錄)>을 간행하고 또 옥천정사(玉川精舍)를 세워 퇴계에게 재호와 액자를 받고 선현봉사와 지방자제 교육을 장려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1566년(명종 21) 4월에 모상(母喪)을 당하니, 공의 나이 55세였으나 몸이 상하도록 곡읍(哭泣)하였으며, 명종의 국상(國喪)이 겹치

때 이미 상중이었으나 임금을 위하여 곡용(哭踊)하는 위치(位次)를 만들고 참취복(斬衰服)을 입었다가, 다시 재취복(齊衰服)으로 어머니의 상사를 마치니, 이로 말미암아 남쪽 지방 사람들이 비로소 상중에 임금의 상복 입는 절차를 알게 되었다.

58세 때인 1569년(선조 2) 탈상 및 명종의 심상(心喪)을 마치고 향거하고 있을 때 인 9월에 불려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을 삼으려 하였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고 이어 권계(勸戒)하는 말 수천 언(言)을 진달하니 모두 격언(格言)이요 지론(至論)이었다. 이로부터 모든 제배(除拜)에 일체 나아가지 않았고, 앞서 5월에 거처하는 가까이에 대관대(大觀臺)와 구암정사(龜巖精舍)를 지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은 거경재(居敬齋), 서쪽에 있는 것은 명의재(明義齋)라 하고 날마다 재생과 학문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학자들이 구암선생(龜巖先生)이라 일컬었다.

1571년(선조 4) 6월에 선생의 하발치에 종기가 솟았는데 여러 가지 약과 침으로 다스렸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고, 7월에 접어들자 병세가 악화되어 7월 16일에 드디어 세상을 뜨니 향년 60이었다. 구암의 생애에 가장 관련이 많았던 퇴계와 남명도 1570년(선조 3) 12월에 퇴계가 죽고, 그 이듬해 7월에 구암이 별세한 7개월만인 1572년(선조 5) 2월에 남명이 죽었다. 즉 3년에 걸쳐 3인이 차례로 죽으면서 그 관계도 끝을 맺었지만, 이보다 앞서 기사년(1569) 4월 진주 유생옥사(晉州儒生獄事)가 일어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암과 남명이 잠시 세정(世情)을 달리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남명이 구암과 절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고, 사후 그 문인들과 후손·후학들에 의한 논란과 시비변론이 많았다.

구암이 별세한 그 해(1571) 8월에 선조는 제문(祭文)을 내리고 예관(禮官)으로 예조정랑 정언신(鄭彦信)을 보내 치제(致祭)하였고 장례 때는 현학사우(賢學師友)·문생들의 제문과 만사(輓詞)가 많았는데, 선조의 사제문을 비롯한 제문 20장(章)과 만사 18장이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구암의 비문에서 <공이 처음 벼슬하여 죽을 때까지의 햇수가 모두 36년이었으며, 이중 외직에 보임된 것이 19년이요, 산관(散官)에 있거나 상(喪)을 당하여 벼슬을 버렸거나 병 때문에 사직하고 집에 있던 것이 13년이요, 조정에 있었던 것은 겨우 4년이였다>고 적고 있으나 상기한 바 관력에서 보았듯이 외관에 보임된 것이 13년이며, 경관(京官)에 재직한 기간은 전후 7년여였다. 단정하고도 정성스럽고 너그럽고도 엄하며, 옛 도를 좋아하고 선(善) 행하기를 즐겼으며 상제(喪祭)를 삼가고 은의(恩義)를 도타이 하였으며, 거가(居家)에나 거관(居官)에나 모두 잘 하였다. 만년에는 도(道)를 믿음이 더욱 독실하여 학(學)을 일으키고 글을 숭상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았다. 송(宋)나라 이후 제유(諸儒)의 도학서(道學書)가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보급된 것은 선생이 처음 간포(刊布) 함으로부터였다고 한다. 또 선

생이 찬한 <성리유편(性理遺編)>·<경현록>이 세상에 유전(遺傳)되고 있다. 1611년 (광해군 3)에 구암 선생을 제향하는 구산사(龜山祠: 뒷 날의 구계서원)가 세워지고, 1641년(인조 19)에는 미수 허목이 선생의 유고를 교정, 편집하고 용주(龍洲) 조경(趙綱)의 서문을 받아 구암집 원집(元集) 2권 1책을 간행하였고 1645년(인조 23)에 구산사 묘정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따라서 1675년(숙종 원년) 9월에 백이장(白而章) 등이 서원청액소(書院請額疏)를 올려 곧 구계서원(龜溪書院)으로 사액(賜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이가순(李家淳) 등 많은 후학들이 시호를 간청하는 청시소(請諡疏)가 올라갔으나, 선생의 성리학적 학행(學行)과 중2품의 실직 관력으로 보아 사후에 당연히 증직·증시가 내려져야 했는데 끝내 실현되지 않았으니, 그것이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다.

## 2) 박재삼(朴在森: 1933~1997)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네 살 때 경상남도 삼천포로 이사와 그곳에서 자랐다. 삼천포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53년 시조 <강물에서>를 모운숙 추천으로 《문예》 11월호에 발표했고, 1955년 《현대문학》에 유치환 추천으로 <섭리>를, 서정주 추천으로 <정숙>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1962년에 첫 시집 《춘향의 마음》(신구문화사)을 낸 이래 시선집을 포함하여 열대여섯 권의 시집을 세상에 펴냈다.

1955~1964년 월간 《현대문학사》 기사를 거쳐서 1965~1968년 《대한일보》 기자, 1969~1972년 《삼성출판사》 편집부장, 월간 《바둑》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1974년에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과 1993년에 새로이 창간된 계간 《한겨레문학》 초대편집위원을 역임했다. 1997년 질병에 시달리다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 <작품목록>

1962년 처녀시집 《춘향의 마음》

1970년 제2시집 《햇빛 속에서》

1975년 제3시집 《천년의 바람》(민음사)

1976년 제4시집 《어린 것들 앞에서》(현현각)

1977년 제1수필집 《슬퍼서 아름다운 이야기》(경미문화사)

- 1978년 제2수필집 《빛과 소리의 풀밭》(고려원)  
 1979년 제5시집 《뜨거운 달》(근역서재)  
 1980년 제3수필집 《노래는 참말입니다》(열쇠)  
 1981년 제6시집 《비 듣는 가을나무》(동화출판공사)  
 1982년 제4수필집 《셋길의 유혹》(태창문화사) - 제7회 노산문학상을 수상  
 1983년 수필선집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오상출판사)  
 1983년 제7시집 《추억에서》(현대문학사) - 제10회 한국문학 작가상을 수상  
 1984년 자선시집 《아득하면 되리라》(정음사)  
 1985년 제8시집 《대관령 근처》(정음사)  
 1985년 제9시집 《내 사랑은》(영언문화사)  
 1986년 수필집 《아름다운 삶의 무늬》(고려원), 《차 한 잔의 광세》(자유문학사)  
 1986년 제10시집 《찬란한 미지수》(오상사) - 중앙일보 시조대상을 수상  
 1986년 시선집 《간절한 소망》  
 1987년 시선집 《바다 위 별들이 하는 짓》(문학사상사)  
 1987년 시선집 《울음이 타는 가을강》 《가을 바다》  
 1987년 제11시집 《사랑이여》(실천문학사) - 제2회 평화문학상 수상  
 1988년 시선집 《햇빛에 실린 곡조》 - 제7회 조연현 문학상 수상  
 1990년 수필집 《미지수에 대한 탐구》(문이당)  
 1990년 제12시집 《해와 달의 궤적》(신원문화사)  
 1991년 제13시집 《꽃은 푸른빛을 피하고》(민음사) 인촌상(仁村賞) 수상  
 1993년 제14시집 《허무에 간혀》(시와시학사)  
 1996년 병상에서 《다시 그리움으로》(실천문학사)

## 라. 호국운동

### 1) 사천초등학교 3.21 기미년 독립 만세 운동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이 밀물처럼 일어나자 당시 천도교 사천 교주 책임자 장태영이 급히 상경하여 독립선언서를 버선 속에 숨겨 돌아오는 열차를 탔다. 삼랑진역에 내려야 할 것을 잠시 잠이 든 바람에 원동역을 지나 물금역에 도착했다.

이는 자기의 정성 부족이라 자책하고 부득이 동역 부근에서 투숙했다. 다음날 삼랑진역에 이르자 지난밤 서울서 내려온 여객들은 손에 가진 것은 물론 속옷까지 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제야 삼랑진역을 무사히 지난 것이 천우신조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천에 온 장태영(長台永)은 강달영과 연락하여 3. 18일에 있었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강대창과 만나 사천에서도 호응하여 기의할 것을 약속하고 임순백, 김성언, 윤수상 등과 사천공립보통학교의 졸업반 학생인 이윤조(李允祖)를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다. 거사일은 사천공립보통학교의 졸업식이 끝나는 시간을 택하여 의거기로 하고 비밀리에 태극기를 200여개 만들어 의거에 대비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21일, 사천공립보통학교 졸업식 날, 졸업 축하 행사로 축구 경기가 열렸다. 축구 경기에서 첫 골인과 동시에 만세 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첫 골인을 신호로 숨죽여 기다리던 사람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며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졸업생인 이윤조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만세 운동이었다. 놀란 교장은 헌병대에 연락하였고 일본 헌병대의 총칼 앞에서도 학생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이윤조는 주동으로 잡혀 2주일간의 옥고를 치른 뒤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천 읍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서부 경남 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리기 위해 사천초등학교에서는 2001년부터 재현행사를 해왔다.



<사천초등학교 독립 만세 운동 재현 행사>




마. 주요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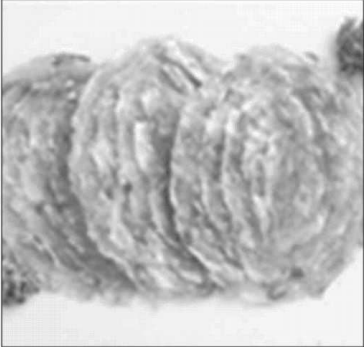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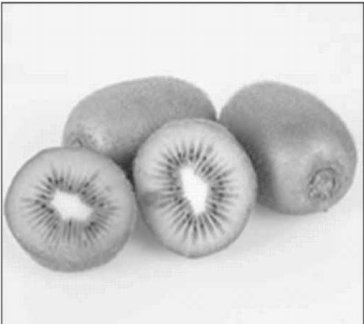

	<p style="text-align: center;"><b>창선·삼천포대교</b></p> <p>대방동과 남해 창선면을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는 총연장 3.4km로 삼천포대교, 초양교, 늑도교, 단항대교, 영개교 등 총 5개의 교량이 모두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어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우리 지역의 명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200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에 선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실안 낙조</b></p> <p>실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보는 바다와 섬을 건너 서산에 지는 저녁 노을은 일품이고, 2000년 한국관광공사 선정 9대 일몰로 선정되었으며 주변의 죽방렴은 대표적인 원시정치망 어업형태로 이곳의 멸치는 맛과 질이 우수하다. 죽방렴과 섬, 바다 그리고 일몰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남일대 코끼리 바위</b></p> <p>향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말의 대학자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남녘땅 제일의 경치라고 하여 남일대라고 이름을 지었다. 코끼리 코 모습을 한 코끼리바위와 서부경남 유일한 조개껍데기 모래의 해수욕장과 진널전망대는 여름철 많은 피서객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선진리성 벚꽃</b></p> <p>용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출전시켜 왜선 13척을 침몰시켜 승전을 거둔 곳으로 조명군총(朝明軍塚)과 코무덤 등 역사의 현장이 있으며, 성내 1천여 그루의 벚꽃이 만개하면 은백색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어 해마다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와룡산 철쭉</b></p> <p>남양동의 와룡산(801m)은 높고 낮은 봉우리가 아흔 아홉 개로 형성되어 구구연화봉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기암괴석과 한려수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보기 위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5월에 철쭉이 만개하면 온 산이 진홍색으로 물든 장관을 연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봉명산 다솔사</b></p> <p>곤명면 봉명산(해발 408m)에 위치한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에 창건한 고찰로서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뜻이며 일제 때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기도 하였고, 대양루, 응진전, 극락전, 적멸보궁과 보안암석굴이 있어 등산, 삼림욕, 약수를 즐기려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읍성 명월</b></p> <p>사천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사천읍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사천읍성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천읍 경관과 달맞이가 아름답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비토섬 갯벌</b></p> <p>서포면의 비토섬에는 월등도, 토끼섬, 거북섬, 목섬이 있고, 이는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있는 곳이며, 드넓은 갯벌은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자연생태 체험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무지개빛 해안도로</b></p> <p>용현면에서 남양동 구간의 2.81km 해안도로의 방호벽이 무지개빛으로 칠해져 일명 ‘무지개빛 해안도로’이다. 낮에는 푸른 하늘과 함께! 저녁에는 붉은 노을에 물든 풍경과 함께! 해안의 절경과 수려한 자연관광을 통해 마음이 힐링되는 장소이다.</p>

바. 특산품

	<p style="text-align: center;"><b>기능성 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 일반벼에 비해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함유되어 콜레스테롤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몸의 황산화 작용을 도와 줌</li> <li>•특징: 청정사천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기능성 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딸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 비타민C가 풍부하여 황산화 작용이 뛰어난 과실이며 딸기속의 일라직산은 암세포 억제를 도움</li> <li>•특징: 영양과 당도가 높은 신선한 맛으로 청결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매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 유기산 다량 함유하여 피로회복, 소화력 증진에 효과</li> <li>•특징: 따뜻한 기후와 겨울철 온도변화에 민감한 매실은 해풍과 일조량이 풍부한 사천에서 생산된 매실이 향기가 진한 것이 특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단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 빈혈, 식욕부진, 혈관 영양장애, 비타민C의 함량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 및 다이어트에 도움, 칼로리 함량이 높아 문화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숙취 제거 및 감기 예방</li> <li>•특징: 일조량과 토질이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사천 제일의 농특산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쥐치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효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혈관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바지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기능 향상: 비타민, 메치오닌, 무기질이 풍부하여 간 보호 및 간기능 향상</li> <li>- 당뇨 예방: 철분, 코발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조혈 작용에 도움</li> <li>- 동맥경화 예방: 타우린이 풍부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동맥경화 예방</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키위(참다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 식이섬유, 칼륨, 엽산 다량 함유, 다이어트 효과, 면역력 증대, 고혈압 예방</li> <li>•특징: 해풍과 일조량이 풍부하여 상콤달콤한 맛이 특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토마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능: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 항산화 물질 함유,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 혈당 저하, 암 예방</li> <li>•특징: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토양, 물, 일조량이 많은 토마토 재배에 좋은 환경에서 재배되는 사천 토마토는 비타민 A가 풍부함.</li> </ul>